

【 국제경제 현안 리포트 99- 2 】

原油收入 激減에 따른 中東 各國의
經濟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1999. 4

目 次

조사목적	1
요 약	4
I. 유가동향 및 전망	12
II. 사우디 아라비아	15
III. UAE(아랍 에미레이트)	32
IV. 이 란	51
V. 리 비 아	62
VI. 오 만	68
VII. 이 집 트	78
VIII. 쿠웨이트	89

조 사 목 적

‘98년 이후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석유판매 수입에 대한 국가 경제 및 재정 의존도가 매우 큰 중동 산유국들이 재정 지출을 대폭 삭감하거나 채무 상환 재조정에 부심하는 등 경제 운용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98년 무려 123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99년에도 118억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유가폭락으로 인한 재정적자 및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사우디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대형 신규 프로젝트 발주 중지, 관용차 및 비품 신규 구입 동결, 세출부문 예산 10%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99년에도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UAE 정부는 전력·수도 분야 민영화 및 외국 자본 유치, 계획중인 프로젝트 비용 삭감 및 보류,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현재 대외채무 변제와 외환보유고 확충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일본 등으로부터 원유를 매개로 한 US\$30억 규모의 차관 도입을 추진중이다.

리비아는 ‘98년에 이어 ‘99년에도 국책 프로젝트의 추진 시기가 조정되고 수입 외화예산 배정이 감소할 전망이다. 리비아 정부는 미·영과의 외교적 마찰 및 정치적인 이유로 10년 이상 지연되어 온 로커비 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근 해결 의지를 갖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리비아 정부의 입장이 이와 같이 급선회한 이유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리비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만은 배럴당 US\$9의 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하여 ‘99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전년도보다 대폭 확대 편성했는데 세입 규모는 ‘98년 대비 24.0% 감액하여 편성했으며 세출 규모도 ‘98년 대비 7.0% 감액 편성했다.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서는 수입관세 및 법인소득세를 대폭 인상했다. 이집트는

유가하락 이외에도 관광 수입 감소,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 수에즈운하 수입 감소 등으로 외환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달러 수요를 막기 위해 수입수요 및 관광을 억제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 수입 급감으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로 그간 계속 미루어 오고 있던 대대적 경제개혁 조치(민영화 및 공공요금 현실화) 시행 압박을 받고 있지만 방대한 규모의 차세대 기금(US\$450억 규모)으로부터의 적자보전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쿠웨이트 정부도 재정적자 추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99년 초 전력, 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 신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 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이를 토대로 한 입법 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상당수의 신규 발주예정 프로젝트들에 대한 검토를 보류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98년 우리 경제는 처음으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 어느때보다도 긴 인고의 시간을 보냈으나 4/4분기 이후 제반 경제지표가 청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고 있으며 다행히 신 3저(달러 약세, 국제금리 하락, 저유가) 현상이 나타나 우리 경제가 더욱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다소나마 그 활력을 되찾게 된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나 중동 지역의 기여도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98년 중동은 동남아 대체시장으로서, 그리고 저가의 원유 공급지역으로서 우리 경제 회복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98년 우리의 대 중동 수출은 65억불 규모로서 전년 대비 28.2%의 큰 증가를 보였으나 수입은 저유가 추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2% 감소한 106억불 수준에 그침으로써 400억불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무역수지 흑자 달성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그런데 저유가 지속은 회복기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제 및 외환 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수출 및 프로젝트 수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의 경우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만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산유국들간에 감산 합의가 진행됨에 따라 '99년 3월 10일 뉴욕 상품거래소(NYMX)에서 4월 인도분 원유의 선물가격이 14.69달러에 이르기도 하는 등 유가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산유국들간에 감산 합의(현재 전세계 원유 생산량의 2.7% 규모)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각 산유국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 내용의 이행을 어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에 대한 UN의 경제제재 완화로 '98년 6월부터 이라크의 원유 수출 가능 액수가 6개월당 종전의 20억불에서 52억불로 확대되어 원유 공급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기 때문에 적어도 '99년 말까지는 저유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만약, 산유국들간의 2.7% 규모 감산 약속이 잘 지켜지고 아시아 지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경우 '99년 평균 유가는 15불대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산유국들의 원유 수입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서 '99년중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원유수입 격감에 따른 각 산유국들의 경제상황,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및 우리 나라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저유가 시대의 대 중동 전략 수립을 위해 유가동향 및 전망을 살펴본 뒤, 각 산유국별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유가하락 관련 각 정부의 주요 경제·무역정책 변화내용, 각국별 수입시장 변화동향, 수출 유망품목, 수출대금 지불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및 거래시 유의 사항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요 약

I. 유가동향 및 전망

- 원유의 국제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세계적인 원유 수요량 및 공급량에 의해 결정되며 원유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률, OPEC의 쿼터량, 소비지의 석유재고 수준, 중동지역의 정세 등이 있음.
- 8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 유가는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 현재 유가는 80년대 초의 약 1/3 수준임.
- 최근의 유가 폭락은 아시아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동남아 국가들의 석유 소비 수요 감소, 산유국들의 증산으로 인한 공급 과잉, 겨울철의 이상 고온 현상(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미국 석유회사들의 재고량 증가 등에 기인.
- 국제 원유가는 '96년- '97년간 배럴당 18- 20달러선을 유지했으나 '97년 12월 OPEC가 11개 회원국의 '98년 상반기중 원유 생산 한도를 9.8% 늘린 일산 2,750만배럴로 상향 조정하면서 '98년 1월 들어 배럴당 15달러 이하로 하락.
- 이후로도 유가는 하락 행진을 거듭, 10달러대에 머물기도 했으며 적어도 '99년 말까지는 저유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II. 사우디 아라비아

- 석유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세계 석유 수급 상황 및 유가 추세가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 사우디 경제에서 석유부문은 총 GDP의 35%, 정부 재정수입의 75%, 총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 비중을 차지.

- 사우디는 대부분의 공산품을 대외 수입에 의존, 수입시장 규모가 연평균 300억달러에 이르나 '98년 초부터는 국제 원유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여 내수를 크게 위축시킴.
- 국제 원유가 하락은 정부재정수입 감소, 공공부문 지출 축소, 정부발주 프로젝트 중단 및 연기 등으로 이어져 자본재 및 소비재 공히 수요가 감퇴되고 있는 현상을 보임.
- 이에 따라 사우디 수입시장은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99년 사우디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한 225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의 경우 낮은 수준의 외환보유 상태 및 누적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 등의 요인만을 고려할 때에는 수입대금 지불 불능 사태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1,200억달러 내외의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99년 말을 고비로 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될 전망을 보이고 있어 대 사우디 수출대금 지불 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때 경기침체에 따른 일부 개별 기업들의 자금압박으로 인해 수입대금 지급 지연 또는 불능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연불수출등 외상수출보다는 가능하면 일람불 신용장 형태의 거래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III. UAE

- UAE 정부의 비석유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GDP에서 원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부다비 정부는 재정수입의 85% 이상을 원유판매 수입에 의존.
- 막대한 석유수출 수입으로 무역 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유가 변동에 따른 흑자폭의 변동이 심함.

- UAE의 외환보유고는 '98년 8월말 기준 약 US\$84억9천(금제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아부다비 투자청 및 왕가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인 약 US\$1,000억과 두바이 정부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인 약 US\$350억을 고려할 때 외화 조달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
- UAE의 외채 규모는 약 US\$120억정도로 이중 90% 이상이 단기성 외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기성 외채중 80% 이상이 무역과 관련된 무역 금융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음.
- 현재 UAE 정부는 전력·수도 분야 민영화 및 외국 자본 유치, 계획 중인 프로젝트 비용 삭감 및 보류,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참여 유도 등을 추진중이며 바이어들은 신규 오더를 보류하고 대 CIS 외상 거래를 중지한 상태임.
- UAE의 금융 및 외환 현황은 여타 중동국가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UAE 정부 자체의 디폴트 선언 및 수출 대금 지불 지연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재수출 시장 침체로 두바이 소재의 많은 바이어들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시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 UAE 거래시에는 가급적 D/A, D/P 조건의 수출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적서류 작성에 유의하고 독점 에이전트 계약에도 신중해야함. 또한 L/C 개설시에는 가급적 전문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은행의 L/C를 요구하는 것이 좋음.

IV. 이란

- 총수출의 85% 이상이 원유 수출이며 정부 재정의 5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할 정도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외환보유고는 '9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이란의 3.2개월치 수입액에 해당하는 51억달러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98년 들어 외채 상환액 증가

등으로 인해 전략적 차원에서 일정액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기본준비금(core reserves)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현재 유가하락에 따른 60억불 이상의 재정적자 및 외환부족으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세법 개정, 정부보조금 정책의 개선, 국영 기업의 민영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지나친 원유수출 수입에 대한 의존과 지속적인 저유가 추세가 현재 이란의 외환사정 개선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음.
- '98년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의 급감에 따라 외채상환 부담이 상당히 과중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는데, '98년 9월말부터 외채상환이 상당 부분 연체되고 있어 외환위기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함.
- 현재 이란 정부는 대외채무 변제와 외환보유고 확충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최근 진행중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으로부터의 원유를 매개로 한 US\$30억 규모의 차관 도입을 통해 현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수출 대금을 우선 결제할 방침임.
- 그러나 이란 정부의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란의 은행에서 개설된 L/C는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서 네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이란 중앙 은행측에서 지불을 연기하고 있어 수출업체들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금 미회수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이란의 개별 바이어와 거래하는 경우 이란의 은행에서 개설된 L/C를 제 3국 은행에서 재보증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두바이등 외환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중동 인근국 은행의 계좌에서 L/C를 개설토록 유도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음.

V. 리비아

- 리비아는 석유수출이 전체 수출의 95%를 점유하고 재정의 원유수입 의존도가 70%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 및 재정의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는데 '9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UN의 경제제재와 '98년 이후의 국제유가 급락으로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리비아의 외환보유고는 US\$50억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로커비 사건이 전향적으로 해결되어 리비아에 대한 UN 제재가 해제될 경우 해외 자산 동결 조치가 해제되어 리비아 정부의 외환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리비아의 대외채무는 US\$40억 내외로 발표되고 있으며 '97년 이후의 대외채무 현황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국가가 철저한 계획경제 체제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국가가 내핍경제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는 필연적일 것이며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고급품 내지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중저가품 내지 불요불급한 품목에 대한 수요도 제한을 받게될 것임.
- 리비아는 외화예산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L/C를 개설하지 않는 등 정부의 철저한 외환 통제에 의해 수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대금 미회수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그러나 L/C의 조건이 80-90%는 at Sight이나 10-20%는 상품 인도 후 지불한다는 내용인 경우 도착 즉시 지불한다는 조건 명시에도 불구하고 외환 부족으로 1개월 이상 장기간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은 배제할 수 없음.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리비아 정부의 수입 외화예산 배정 축소가 확실히 되고 있어 수입시 우선 순위가 배정되고 있는 생필품을 위주로 수주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VI. 오만

- '97년 기준 국가경제 및 재정의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각각 39.1% 및 77.1%로 매우 높은 편이나 '98년 이후로는 그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고는 '97년까지는 20억불 수준을 유지했으나 '98년 이후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9년에는 15억불 수준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 '97년 기준 대외 채무액은 약 39억불로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99년에는 더욱 확대되어 53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 국제유가 약세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 및 가처분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만의 수입업자들은 최근 오만 정부가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현재까지 대 오만 수출대금 회수와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유가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수출대금 지불 지연 및 수출대금 미회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대 오만 거래시에는 에이전트 선정시 세심한 주의 및 성실한 관리, 외상거래 조건 수용시 신중한 검토, 수출 사후관리 철저 등이 중요.
- 오만의 은행들은 모두 BIS 비율이 8%를 상회하는 우량 은행들이기는 하나 무역관을 통해 신용장 개설 은행의 신뢰도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수입상에 대한 신용조사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대 오만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은 1회용 주사기 설비, 어망 설비, 콘크리트 못 설비, 제지 설비, 의료용 솜 설비, 중고차량 및 건설장비, 제지변환 설비, 위생용품 설비, 직물 설비, 인쇄기계, 천막 설비, 제약 설비, 컨테이너 설비, 부엌용품 설비, 알루미늄 제품 설비, Compact Disc 설비, 케이블 설비 등 중소형 산업설비 및 기계류(중고 포함)임.

VII. 이집트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은 이집트 총수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원유는 생산량의 절반이 수출되고 있는데, 에너지 사용을 점차 천연가스로 전환시키고 있어 원유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그간 GDP 700억불 대비 200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던 이집트는 관광, 석유, 수에즈운하, 해외근로자 송금 등 주요 외환수입원의 감소 및 수입수요증대, 여행증가 등에 따른 달러수요 과잉으로 최근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이집트 정부는 달러부족에 따른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10억불을 투입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울러 불필요한 달러 수요를 막기 위해 수입수요 및 관광을 억제하고 있음. 그러나 수출대금 미회수 사태등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 이같은 상황하에서 이집트 업체와의 거래시에는 대금지불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대금중 일부를 T/T로 받았을 경우에도 선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품 제작에 들어가지 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L/C가 최종적으로 오픈된 것을 확인한 후 상품 제작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임.
- 향후 대 이집트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건설 장비, 포장 장비, 기계 공구, 의료장비, 산업용 밸브 등이 있음.

VIII. 쿠웨이트

- GDP의 50%, 정부 재정수입의 90%, 수출의 95%를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 수입에 의존할 정도로 국가 경제 및 재정의 OIL 의존도가 큰 쿠웨이트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쿠웨이트 정부는 OIL 판매 수입 급감으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해외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된 US\$450억 규모의 차세대 기금으로부터의 투자수익만으로도 재정적자 보충이 가능할 것

으로 분석되고 있음.

- 그러나 쿠웨이트 정부도 재정적자 추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 의식은 느끼고 있으며 '99년 초 전력, 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 신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 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함.
- 쿠웨이트 정부는 쿠웨이트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차세대 기금 운영에 대한 여론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한 입장으로서 동 기금으로부터의 재정적자 보충보다는 재정수입확대와 재정지출 억제 및 삭감을 우선적으로 모색중이며 이에 따라 상당수의 신규 발주예정 프로젝트들이 검토가 보류되거나 연기되고 있음.
-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특히, 불요불급한 소비재나 가전제품, 자동차, 가구류 등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수입업자들이 경기부진으로 오더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고 자금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가적 차원의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쿠웨이트의 경우 시중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높고 외환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에 쿠웨이트 시중 은행에서 개설된 L/C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다만, 일부 수입업체들이 자금 압박을 받아 Usance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업체의 재정상태를 고려,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DA 및 DP 거래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I. 유가동향 및 전망

1. 유가 결정 요인

- 원유의 국제 가격은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세계적인 원유 수요량 및 공급량에 의해 결정됨.
 - 원유는 선물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원유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도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침.
- 원유의 수요 및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률, OPEC의 쿼터량, 소비지의 석유재고 수준, 중동지역의 정세 등이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른 동 지역에서의 석유 수요 감소, 미국의 석유 재고량 증가, OPEC의 석유 쿼터량 확대 등으로 인해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왔음.
 - 세계적인 엘리뇨 현상도 유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음.

2. 국제유가 추이

- 8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 현재 유가는 80년대 초의 약 1/3 수준임.
- '88년- '90년, '94년- '96년간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96년 이후 다시 급격한 하락세 지속.
- 한편, 최근에는 산유국들간의 감산 합의가 진행됨에 따라 유가가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나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서 '99년 말까지는 저유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3. 최근 유가하락의 원인

- 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로 동남아 국가들의 석유 소비 수요 감소.
- 산유국들의 증산으로 인한 공급 과잉.
- 겨울철의 이상 고온 현상(엘리뇨 현상)으로 미국 석유회사들의 재고량이 크게 늘어나 공급이 과잉됨.

4. 최근 동향 및 전망

- 국제 원유가는 '96년- '97년간 배럴당 18- 20달러선을 유지했으나 '97년 12월 OPEC가 11개 회원국의 '98년 상반기중 원유 생산 한도를 9.8% 늘린 일산 2,750만배럴로 상향 조정하면서 '98년 1월 들어 배럴당 15달러 이하로 하락.
- 이후 유가는 지속적인 가격 하락 행진을 거듭, WTI(서부 텍사스산

중질유)의 '98년 6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12.96달러를 기록함으로써 '88년 하반기 이후 9년여만의 최저치를 기록.

☞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3대 원유는 북해산 브렌트유, 중동산 두바이유,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이며, 이중 WTI의 가격이 가장 높음.

- 이후로도 유가는 하락 행진을 거듭, 10달러대에 머뭄.
- 99년 3월 10일, 4월 인도분 원유의 선물 가격이 14.69달러로 급등.
 -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진행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저유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 적어도 '99년 말까지는 현재와 같은 저유가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산유국들간에 감산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각 산유국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 내용의 이행을 어길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 경기 침체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에 대한 UN의 경제제재 완화로 '98년 6월부터 이라크의 원유 수출 가능 액수가 6개월당 종전의 20억불에서 52억불로 확대되어 원유 공급이 증가할 전망.

II. 사우디 아라비아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구조 현황

1) 경제성장률

- 석유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세계 석유 수급 상황 및 유가 추세가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침.
- 70년대에는 두 차례에 걸친 오일 붐에 편승하여 80년대 초반까지 연 평균 10%대의 경제 성장 시현.
- '83년 이후의 유가 하락으로 80년대에는 연 평균 2%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보임.
- 90년대 초반에는 걸프전 발발로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석유 생산이 급감함에 따라 사우디의 석유 생산량이 증대되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임.
- '93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매우 저조해졌는데, 이는 비석유 부문과 민간 부문의 성장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되었기 때문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

연 도	'93	'94	'95	'96	'97
경제성장률	1.0	0.6	0.3	2.3	3.0

자료원 : 사우디 중앙은행

2) GDP

(단위 : US\$억)

연 도	'93	'94	'95	'96	'97
G D P	1,201	1,209	1,257	1,330	1,451

자료원 : 사우디 중앙은행

3) 1인당 GDP

(단위 : US\$)

연 도	'93	'94	'95	'96	'97
1인당 GDP	6,923	6,867	7,300	7,800	8,060

자료원 : 사우디 경제재무부

4) 무역수지

- 무역 수지는 막대한 석유수출 수입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흑자를 유지.
- 주요 수출품은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이며, 주요 수입품은 운송장비, 기계류 등임.

수출입 추이

(단위 : US\$억)

연 도	'93	'94	'95	'96	'97
수 출	423	426	500	560	560
수 입	258	213	256	275	290
수 지	165	213	244	285	270

자료원 : 사우디 중앙은행

5) 주요 산업

가) 산업 구조

(단위 : %)

연 도	농업	석유 · 가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 · 기타
1989	7.3	27.0	8.1	10.4	47.2
1996	6.3	35.3	9.4	8.7	40.3

자료원 : 중동편람, EIU

나) 석유산업

- 70년대 이후의 꾸준한 산업 구조 다변화 정책의 시행으로 대 GDP 비중이 '70년의 58%에서 '89년에는 27%로 감소하여 석유산업 의존도가 크게 감소.
- '96년에는 그 비중이 35.3%로 증가했는데, 이는 걸프전 발발과 UN의 대 이라크 석유 금수조치로 인한 공급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증산에 기인.
- 장기적으로 석유 및 석유관련 제품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를 위해 동 부문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전개중.

다) 제조업

- 장기 개발계획 기간(70년- 89년)동안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제조업 육성 기반이 어느정도 확보됨에 따라 사우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차츰 높아지고 있음.
- 주요 업종은 석유화학, 식품가공, 기계조립 등임.

6) 경제적 강점

- 세계 최대의 석유자원 보유국

7) 경제적 약점

- 석유에 편중된 산업 구조
- 노동력 부족
- 전근대적 회교 원리주의 신봉

나. 수출입 동향 및 전망

1) 수입동향

- 사우디는 국내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주요 자본재로부터 일반 경공업 제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산품을 대외 수입에 의존.
 - 수입시장 규모가 연평균 300억달러에 이름.
- '98년 초부터는 국제 원유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여 내수를 크게 위축시킴.
- 국제 원유가 하락은 정부재정수입 감소, 공공부문 지출 축소, 정부발주 프로젝트 중단 및 연기 등으로 이어져 자본재 및 소비재 공히 수요가 감퇴되고 있는 현상을 보임.
 - 일반 기계류, 운반용 기계류, 전기제품 등 대형프로젝트 소요설비 및 장비류에 대한 수요 감소.
 - 소비자 구매력 저하로 인한 가전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장기화.
 - 직물·의류를 비롯한 일부 경공업 소비재의 경우 주공급국인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 제국 화폐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이 수입실적 감소의 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98년 사우디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11.8% 감소한 253억 달러 규모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경기침체 양상에 따라 사우디의 수입시장은 새로운 패턴을 보이고 있음.
- 덤프 트럭, 포크리프트 등 건설 중장비류의 경우 중고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일반 승용차의 경우 소비자들의 선호가 대형차 위주에서 중소형차로 변화되어 가는 추세임.
- 전자제품, 식물 및 의류 등 경공업 제품의 경우 가격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음.
- 식품, 의약품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경우 지속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문화적 특성상 귀금속 장신구의 수요도 견실한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주요 품목별 수입실적

(단위 : US\$백만, %)

품 목	1995	1996	1997
Foodstuffs	4,579	4,788	4,999
Textile & Clothes	2,110	2,024	1,892
Medicines	750	766	864
Chemical Products	2,547	2,477	2,380
Wood & Wood Products	425	390	355
Jewelry	1,130	1,173	2,197
Base Metal & Metal Articles	2,895	2,772	2,591
Electrical M/C, Eqpt. & Tools	6,139	5,826	5,671
Cars & Spare Parts	1,666	1,423	1,481
Other Transportation Means	2,379	2,818	2,982
Others	3,429	3,271	3,292
계	28,050	27,728	28,704

자료원 : 사우디 통계청

2) '99년 수입전망

-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사우디의 긴축정책이 지속되는 한 시장경기의 단기간내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사우디 수입시장은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99년 사우디 총수입은 전년 대비 10% 정도 감소한 225억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부문별로는 전기기계, 운반용 기계류를 비롯한 프로젝트 소요장비 및 시설분야의 수요 감소와 전자, 직물, 자동차 부문의 수요 정체가 예상됨.

3) 수출동향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단위 : US\$억, %)

품 목	1994	1995	1996(비중)
Mineral Products	380.8	434.8	541.3(89.3)
- Crude Oil(million barrel)	2,275	2,296	2,236(-)
- Crude Oil(US\$)	312.5	354.6	435.4(71.8)
Foodstuffs	3.8	4.2	3.6(0.5)
Chemical Products	21.0	27.1	27.7(4.5)
Plastic Products	8.9	14.5	11.2(1.8)
Base metals	2.5	7.0	6.4(1.0)
Electrical Machines, Equip	1.4	2.3	2.6(0.4)
Others	3.4	4.9	6.1(1.0)
Re- exports	3.5	4.7	6.1(1.0)
계	425.5	499.7	606.4(100.0)

자료원 : 사우디 통계청

주) '97년 및 '98년 원유 수출실적은 물량 기준으로는 각각 2,257백만배럴 및 2,221백만배럴로 추산되며 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419.6억달러 및 250.9억달러로 추산됨.

- 사우디는 원유, LP가스 등 석유부문이 총수출의 90%를 차지(원유는 총수출의 70%를 상회)하는 등 석유부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보유.
- 사우디산 원유 평균 수출가격이 19달러대를 기록했던 '96년의 경우 총수출이 606억달러에 달했으며 '97년에는 598억달러를 기록.
- '98년의 경우에는 원유가가 배럴당 11달러대에 머물러 총수출이 371억달러에 불과, 전년 대비 38%의 감소를 기록.

4) '99년 수출전망

- '98년에 이어 '99년에도 저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유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사우디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또한 OPEC 합의 감산물량을 준수하여 1일 800만배럴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저유가에 생산물량 감소까지 겹쳐짐으로써 '99년 원유를 포함한 사우디의 총수출액은 '98년의 370억달러 대비 13% 감소한 320억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다. 재정수지 동향 및 전망

- 사우디 정부의 재정수입은 75% 내외가 석유부문 수입임.
 - 관세 및 종교세(zakat)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내국세를 국민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어 국제 원유가의 등락은 사우디 정부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98년 초 국제 원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자 사우디 정부는 예산 10% 절감 방침을 밝힘과 아울러 정부 프로젝트의 중단 또는 연기 조치를 취함.

- '99년에도 이같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 2000년 이후의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는 발주를 중단하기로 하는 등 초긴축 기조를 발표.
- '99년 사우디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118억달러로서 GDP의 9%를 상회할 전망.
- 사우디 정부는 이같은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대외 차입을 극력 회피하는 한편, 시중은행 및 각종 연·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 유동성 고갈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연도별 재정수지 추이

(예산편성 기준, 단위 : US\$억)

구 분	1994	1995	1996(추경)	1997(추경)	1998(추경)	1999
세 입	320	360	350(472)	437(544)	475(381)	323
세 출	426	400	400(517)	483(560)	523(504)	441
수 지	- 106	- 40	- 50(- 45)	- 46(- 16)	- 48(- 123)	- 118

자료원 : 사우디 중앙은행

라. 외환보유고 현황 및 전망

연도별 외환보유고(금보유 제외)

(단위 : US\$억)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추정)	1999(전망)
외환보유고	73.8	86.2	67.9	73.5	67.5	60.0

자료원 : EIU

- 사우디의 연도별 외환보유고 현황을 보면 최근 수 년간 100억달러 내외의 외환보유 실적을 보이고 있음.

- 경제규모 및 수출입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 그러나 사우디는 약 1,250억달러의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공공 부문이 750억달러 내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사우디 중앙은행은 500억달러의 해외자산을 증권, 채권, 금 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리알화 방어 및 경상수지 적자보전을 위한 외환 전환이 용이한 자산으로 알려지고 있음.

마. 대외채무 현황 및 전망

1) 대외채무 현황

- 사우디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91년 걸프전비(450억달러) 상환으로 외채는 없다고 함.
- '97년 1월 기준 정부 채무는 900억달러(총 GDP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중 75%는 국민연금, 사회보험기금 등에서의 차입이며 나머지 25% 정도는 정부의 공채 또는 시중 상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걸프전 이후 해외 민간 자산의 환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는데 사우디의 해외투자 자산은 1,250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94- '95년 해외자본 유입 현황을 보면, 내국 기업인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자산을 환입해 온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이같은 현상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 단기 전망

- 유가 폭락으로 인해 재정수입 감소가 긴축예산 편성, 시중은행 차입 증대, 유동성 고갈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사우디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해외 차입을 부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사우디 정부가 외채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실제로 간헐적으로 품문등이 유포되고 있으나 이때마다 사우디는 정부 발표로 이를 부인.
- 한편, 사우디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외차입을 추진하고 있음.
 - 국영 사우디 에어라인의 항공기 도입시 사우디 정부는 43억달러의 지급 보증을 한 바 있는데, 이는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 들여지고 있음.
 - '99년 적자예산 보전과 관련하여 정부 당국자는 그 방안의 하나로 국영 석유회사인 SAUDI ARAMCO를 통한 차입을 거론한 바 있음.

3) 중장기 전망

- 중장기적으로 사우디가 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됨.
 - EIU등 세계적인 경제예측 기관에서 내놓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0년부터 사우디 경제는 유가회복 및 외환보유고 증대 등을 통해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임.

바. 사우디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1998(추정)
GDP	US\$억	1,234	1,251	1,364	1,460	1,302
명목성장률	%	0.6	1.4	8.6	7.1	- 10.8
1인당GDP	US\$	6,800	6,700	6,800	7,200	6,400
총수출	US\$억	426	499	606	598	371
총수입	US\$억	234	281	278	287	253
무역수지	US\$억	192	218	328	311	118
세입	US\$억	320	360	472	544	381
세출	US\$억	426	400	517	560	504
재정	US\$억	- 106	- 40	- 45	- 16	- 123
경상수지	US\$억	- 105	- 53	6.8	2.5	- 128
원유생산	백만B/일	8.10	8.16	8.15	8.35	8.31
원유수출	백만B	2,275	2,296	2,236	2,257	2,221
원유수출	US\$백만	31,253	35,464	43,542	41,957	25,097
유가	US\$/B	15.39	16.73	19.85	18.76	11.3
외환보유고	US\$억	73.8	86.2	67.9	73.5	67.5
소비자물가	%	0.6	4.9	0.8	0.8	- 0.2

자료원 : IMF, MEED, EIU, SAMA

사. 국가경제 및 재정의 원유수입 의존도

- 사우디 경제에서 석유부문은 총 GDP의 35%, 정부 재정수입의 75%, 총수출의 90%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 비중을 차지.
- 이는 사우디의 산업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국민경제 활동이 거의 공공부문, 특히 석유부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 전부터 내국세제 도입,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전력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 체계 개선 등을 권고해 오고 있으나 국내정치등의 문제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임.
- 현재 유가하락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

- 유가하락으로 인해 '97년 2억 5천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에서 '98년에는 128억달러의 적자로 급반전.
- 재정적자 또한 '98년에는 123억달러, '99년에는 11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98년 9월 외환시장에서는 사우디 리얄화 집중 매도로 리얄화의 평가절하가 임박하였다는 예상이 팽배하였으나 사우디 중앙은행이 적극 개입하여 이를 진정시킨 바 있음.

아. 유가하락 관련 사우디 정부의 주요 경제·무역정책 변화 내용

- 사우디 정부는 '98년의 기준 유가를 '97년의 평균 유가인 배럴당 18.76달러 보다 크게 낮은 14.50달러로 책정하여 세입과 세출을 각각 475억달러 및 523억달러로 편성했으나 유가가 10달러대 이하까지 떨어짐.
- 이에 따라 실제 집행은 세입 381억달러, 세출 504억달러로 재정적자가 무려 123억달러에 이름.
- '99년에도 118억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유가폭락으로 인한 재정적자 및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사우디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99년에도 공공요금 인상 및 각종 규제 강화가 예상됨.
 - 대형 신규 프로젝트 발주 중지
 - 관용차 및 비품 신규 구입 동결
 - 세출부문 예산 10% 삭감
 - 국내선 항공료 인상(1등석 50%, 비즈니스 클래스 35%)
 - 공항출국세 부과(US\$13)
 - 비자수수료 인상
 - 농업보조금지원 특별채권 발행
 - 20명 이상 고용 사기업의 5% 이상 사우디인 취업

- 정부부문 외국인 취업 10년까지 허용 및 동일 직종 재연장 계약 불허
- 무기구매와 대형 공공 프로젝트 등 유동성 국외 유출사업 최대 억제
- 자국산 우선 구매정책 추진
- 정부보조금 지급상품 재수출 금지

2. 국제유가 하락추세에 따른 수입시장 변화동향

가. 주요 수입업자들의 반응

1) 섬유 · 직물

- 동남아 시장 위축여파로 대체 시장화하여 가격 경쟁이 극심한 상태임.
- YARN, FABRIC 등의 제품을 현지 국영 기업체인 SABIC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어 동 품목의 수입 감소.
- 또한 사우디 방문 성지 순례객들의 정부 허가구역외 출입금지 조치로 인해 추가구매력이 위축된 상태.

2) 철강

- 판재류의 수입 급감 및 수입 규제 가능성 상존.
 - 하디드 제철소가 '99년 하반기부터 판재류 생산(연간 100만톤)에 들어감.
- 기타 품목은 전년 수준의 수입이 예상됨.

3) 자동차

- 대형 고급 차종보다는 중소형차에서 신장세가 기대됨.

4) 가전

- 주택경기 침체 및 가계소득 감소로 수요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다만, 인터넷 개방으로 컴퓨터등 관련 품목에 대한 신규 수요가 주요 변수임.

5) 타이어

- '98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나 중국산등 저가품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나. 소비자 구매동향

-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저가 위주의 제품이 선호되고 있으며 중국 및 동남아 국가의 저가 공세 강화로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일부 가전제품등의 경우에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장기화되어 신규 수요 증대에 한계가 있음.
- 필수불가결한 경우 이외에는 소비를 억제하고 현금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음.

3. 수출 유망품목

가. 기존 유망 품목

1) 섬유 및 직물

- 연간 약 4억불의 고정 수요 지속.
- 한국산은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시장의 약 65%를

점유.

2) 타이어

- 연간 3억불 상당의 수요중 한국산이 약 27%를 점유.

3) 자동차

- 연간 10만대 규모의 수입중 한국산이 10% 이상을 점유.

4) 철강

- 연간 약 3억불의 수요중 1억불 이상을 한국산이 점유.
-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음.

5) 가정용 전자

- 연간 약 5억불 규모의 시장에서 한국산이 20% 가량의 시장 점유율 보이고 있음.

나. 향후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1) 자동차 부품

- 연간 약 6억불의 수요중 사우디 자체 생산량이 극히 미미.

2) 기계류

- 정부의 자국 산업화 정책으로 자체 공장 설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체의 자체 공장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 관련 설비 및 기계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3) 전기·전자부품

- 장기 경기침체로 전기·전자제품의 라이프 싸이클 장기화.
- 이에 따른 각종 유지·보수용 부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4) 건강식품 및 의약품

-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관련 제품이나 의약품에 대한 수요 증가.

4. 대 사우디 수출 대금 지불 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가. 대 사우디 수출대금 지불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분석

- 최근 수 년간 사우디는 재정수입 감소로 인해 각종 발주공사의 취소, 연기는 물론 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례가 빈발하는 등 경기침체의 국면에 이미 진입한 바 있음.
 - 그러나 이같은 사례는 현재까지 정부발주 대형 프로젝트에 국한된 현상이며 민간부문에까지는 확산되지 않고 있음.
- 사우디의 경우 낮은 수준의 외환보유 상태 및 누적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 등의 요인만을 고려할 때에는 수입대금 지불 불능 사태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러나 사우디가 보유하고 있는 1,200억달러 내외의 해외자산이 이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음.
 - 사우디 중앙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 200억달러를, 경상적자 보전을 위해 300억달러를 즉시 동원 가능한 형태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아울러 '99년 말을 고비로 유가가 어느 정도 회복될 전망을 보이고

있어 대 사우디 수출대금 지불 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됨.

나. 대 사우디 거래시 유의 사항

- 사우디는 시장경제 원리를 지향, 원칙적으로 자유경쟁을 보장하고 있으며 외환관리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음.
- 그러나 단기적으로 볼때 경기침체에 따른 일부 개별 기업들의 자금 압박으로 인해 수입대금 지급 지연 또는 불능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연불수출등 외상수출보다는 가능하면 일람불 신용장 형태의 거래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오랜 거래 관계로 상호 신뢰가 구축된 상태에서 급작스런 대금 지급 형태 변경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사우디인들중에는 간혹 과거 한국 업체와 거래시 계약서 한 장 작성치 않고 장기간에 걸쳐 좋은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온 예를 자랑하는 사업가들이 있으며 이들중에는 사우디 저명인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임.

III. UAE

1. 최근 경제 동향 및 전망

가. 경제구조 현황

1) 경제성장률

- 최근 경제 성장은 건설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
- 연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개발정책의 부재와 기술 인력 부족이 경제성장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음.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

연 도	'93	'94	'95	'96	'97
경제성장률	0.4	- 1.7	1.0	0.8	0.3

자료원 : EIU

2) GDP

(단위 : US\$억)

연 도	'93	'94	'95	'96	'97
G D P	356.7	367.0	403.0	446.2	454.9

자료원 : EIU

3) 1인당 GDP

(단위 : US\$)

연 도	'93	'94	'95	'96	'97
1인당 GDP	14,100	13,500	15,100	16,600	18,050

자료원 : EIU

4) 무역수지

- 막대한 석유수출 수입으로 무역 수지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유가 변동에 따른 흑자폭의 변동이 심함.
- 주요 수출품은 원유이며, 주요 수입품은 공산품, 기계 및 운송장비, 식료품 등임.

수출입 추이

(단위 : US\$억)

연 도	'93	'94	'95	'96	'97
수 출	266.7	273.9	292.3	332.2	338.5
수 입	177.5	206.2	213.5	235.2	254.5
수 지	89.2	67.7	78.8	97.0	84.0

자료원 : EIU

5) 주요 산업

가) 산업 구조

(단위 : %)

연도	농업	석유·가스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기타
1987	1.9	36.6	9.4	9.3	9.9	32.9
1996	2.6	34.8	9.1	8.6	16.9	28.0

자료원 : 중동편람, EIU

나) 석유산업

- 석유산업은 '96년 기준 GDP의 34.8%, 수출의 52.9%를 차지하는 최대 산업임.

- 석유산업의 대 GDP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80년 60% → '96년 34.8%).
- '96년 기준 원유 확인 매장량은 약 980억 배럴로서 전세계 매장량의 약 10%에 달함.

다) 제조업

- 정부의 산업구조 다양화 노력에 힘입어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75년 1% → '87년 9.4%).
- 최근 GCC 국가들의 경기 침체로 생산 활동이 부진하여 '96년에는 9.1%로 감소.
-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알루미늄 수출이 제조업 총수출의 60%를 차지.

6) 경제적 강점

- 석유 및 천연자원 등 에너지 자원 풍부
- 중개 무역항 발달

7) 경제적 약점

- 석유에 편중된 산업구조
- 기술 인력의 부족
- 국내시장 협소

나. 수출입 동향 및 전망

1) 개황

- '99년 UAE의 수출은 유가하락에 따른 원유 판매 수익 감소 및 CIS 및 이란 등 주요 재수출 시장 침체로 '98년 대비 US\$24억이 감소한 US\$253억에 이를 전망.
- '99년 UAE의 수입은 주요 수입국인 동남 아시아 국가의 통화 평가 절하에 따른 수입 상품 가격 하락으로 US\$22억이 감소한 US\$220억에 이를 전망.
- UAE의 주요 수출품목(재수출 품목 제외)은 원유, 알루미늄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 가전제품, 식품,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제품임.

수출입 추이

(단위 : US\$십억)

구 분	1994	1995	1996	1997(추정)	1998(추정)	1999(전망)
수 출	27.39	29.23	33.60	32.98	27.79	25.39
수 입	20.62	21.35	20.60	27.22	24.29	22.06
무역수지	6.77	7.88	13.00	5.76	3.50	3.33

자료원 : EIU

2) 품목별 수출동향 및 전망

가) 원유

- 원유는 UAE 총수출 금액(재수출 금액 포함)의 약 30%를 차지.
 - 두바이를 통해 제 3국으로 재수출되는 금액을 제외할 경우 총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
- '99년 원유 수출은 유가 하락 및 감산으로 전년 대비 US\$19억 감소한 US\$72억에 이를 전망.

원유수출 추이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추정)	1999(전망)
금액(US\$십억)	11.70	13.00	14.60	13.00	9.11	7.20
물량(백만b/d)	2.22	2.22	2.23	2.25	2.30	2.20

자료원 : EIU

나) 비원유 제품(재수출 포함)

- '99년에는 두바이의 주요 재수출 상대국인 CIS 및 이란의 외환사정 악화로 두바이를 통한 재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전망.
- 특히, 두바이를 통한 섬유 및 가정용 전자제품의 재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나 수요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원유제품 수출 추이

(단위 : US\$백만)

품 목	1995	1996	1997
섬유 · 의류	905	1,101	1,131
기초금속/제품	817	777	1,075
기계류 · 전자제품	788	1,100	1,122
수송기계	698	616	590
채소류	343	473	423
보석류	268	327	369
식음료품 · 담배	213	219	224
화학제품	206	248	295
플라스틱 · 고무제품	190	292	281
잡제품	116	171	199
기 타	658	715	819
계	5,202	6,039	6,528

자료원 : SOOCAS, Dubai/ADFTS, ADCD, Abu Dhabi

주) 7개 에미레이트중 두바이, 아부다비만 집계

3) 품목별 수입동향 및 전망

가) 기계류 및 전자제품

- 기계류는 제조업 부문이 빈약한 관계로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나 정부의 비석유산업 육성 정책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포장기기 및 사출기는 음식 가공산업이 발달하면서 수입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가정용 전자제품은 바이어들의 재고 부담 및 재수출시장의 침체로 '98년 7월 이후 수요가 급감한 상태임.
- 관련업자들은 '99년 4월 또는 8월 이후 시장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나) 섬유·직물 및 금장신구

- 섬유·직물은 재수출 시장의 침체로 '98년 8월 이후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99년 1월 중순 이후 CIS 국가를 중심으로 바이어들의 재고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요가 다소 회복되고 있음.
- '98년 금괴 총수입물량은 전년도의 660톤에서 360톤으로 크게 감소.
- 주요 재수출 상대국인 인도에 대한 경제제재에 따라 구매력이 감소한데다 CIS 방문객이 감소한데 기인.
- '99년에는 '98년보다 약간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 수송기계

- UAE의 자동차 내수는 연간 10%정도씩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99년에는 약 90,000대가 수입될 전망이다.

- 일본 및 유럽 자동차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98년에는 엔화 약 세로 일본산 자동차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

라) 화학제품 및 기초금속(철강 포함)

- PE, PP는 중동산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보유 시장을 석권하고 있음.
- '98년에는 동남아 시장이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중동 시장에 덤핑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되어 수입이 증가.
- '99년에는 동남아 국가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수입 물량이 다소 감소될 전망.
- 내수시장 규모가 작아 철강 수요는 많지 않으나 '98년에는 건설경기 활황으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99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주로 유럽 및 동구산 제품이 시장을 석권하고 있음.

마)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타이어 포함)

- 세계적 타이어 제조업체가 두바이 시장을 재고 처리 시장으로 인식, 덤핑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어 가격 경쟁이 매우 치열.
- 주로 아프리카, 중동 인근국 및 CIS 등지로 수출되고 있으나 '99년에는 재수출 시장 침체로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바) 정보화기기

- UAE의 정보화기기 수요가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중동 지역의 컴퓨터 및 관련 악세사리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99년에는 수입액이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할 전망.

사) 채소류

- 일부 채소류를 제외하고는 수요량 전량을 수입에 의존.
- '99년에는 전년 수준 정도가 수입될 전망.

아)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 US\$백만)

품 목	1995	1996	1997
기계류, 전자제품	5,381	5,459	5,167
섬유, 의류	2,767	3,005	3,117
수송기계	1,844	2,540	2,725
기초금속/제품	1,996	1,992	1,961
화학제품	1,111	1,246	1,407
채소류	1,015	1,125	1,084
플라스틱, 고무제품	845	984	950
잡제품	640	773	825
의료기기, 시계, 광학기기	598	648	676
보석류	555	499	600
식음료품, 담배	525	588	618
기 타	2,437	2,581	2,542
계	19,714	21,440	21,672

자료원 : Dubai/ADFTS, ADCD, Abu Dhabi

주) 7개 에미레이트중 두바이, 아부다비만 집계

다. 재정수지 동향 및 전망

- UAE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재정에는 각 에미리트 정부의 재정을 합산한 The Consolidated Account of Government Finance와 UAE 연

방정부의 재정인 The Federal Account of Government Finance의 두 가지가 있음.

- U.A.E. 자치정부와 연방정부의 재정을 통합적으로 볼 때, 수입원의 85%는 원유 판매 수입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유가하락에 따른 재정 부족으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보류되거나 취소되고 있음.

- 특히, 두바이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전체 인구의 90%나 되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수수료 및 공공 요금을 인상.

- 7개 에미레이트 통합 예산 내역

(단위 : US\$ 백만)

구 분	비 목	1996	1997(추정)
재정수입	관세수입	389.89	457.92
	기타 세금수입	2,236.34	2,280.05
	Oil & Gas 판매수입	10,111.20	11,239.89
	Joint stock company profits	543.44	724.59
	기타 세외수입	716.67	780.05
	합 계	13,997.54	15,482.51
재정지출	보급 및 급여	3,437.16	3,583.33
	Goods & services	4,998.63	5,025.96
	정부보조금 및 이전수지	5,091.26	1,881.69
	기타 경상비용	2,551.09	2,342.08
	경제개발비	2,784.97	2,962.57
	국내 융자(local loans)	1,131.42	1,325.68
	해외 대부	176.23	260.38
	합 계	20,170.77	17,371.86
재 정 수 지		- 6,173.22	- 1,889.34

자료원 : UAE Central Bank Annual Report 1997

- 예산 내역 미발표로 '99년 재정수지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나 주수입 원인 원유가가 하락되고 있어 재정적자 규모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 그러나 재정 적자는 통계상의 수치이며 실제로는 아부다비 및 두바이 통치자들이 그동안 해외에 투자한 것에 대한 이익금으로 부족한 금액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라. 외환보유고 현황 및 전망

외환 보유고 현황

(단위 : US\$십억)

연 도	1994	1995	1996	1997(추정)	1998.1- 8월(추정)
금 액	6.66	7.47	8.05	8.37	8.49

자료원 : EIU

- UAE의 외환보유고는 정부에서 공식 발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금액 파악이 어려우나 IMF등의 발표 자료를 보면 '98년 8월말 기준 약 US\$84억9천(금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동 금액은 아부다비 투자청 및 왕가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인 약 US\$1,000억과 두바이 정부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인 약 US\$350억을 산정하지 않은 것으로 외화 조달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전해 짐.

마. 대외 채무 현황 및 전망

외채현황

(단위 : US\$십억)

구 분	1994	1995	1996	1997(추정)	1998(추정)	1999(전망)
외 채	12.22	9.50	10.88	10.80	13.00	13.20

자료원 : EIU

- UAE의 정확한 외채는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아 파악이 어려우나 각종 자료를 취합해 보면 약 US\$120억정도로 이중 90% 이상이 단기성 외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단기성 외채중 80% 이상이 무역과 관련된 무역 금융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지는 않음.

바.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6	1997(추정)	1998(추정)	1999(전망)
GDP	US\$십억	44.6	45.2	44.8	44.7
1인당 GDP	US\$천	16.3	17.2	15.4	15.0
실질 GDP 성장률	%	0.8	0.3	- 1.8	- 1.2
인플레이션율	%	7.4	5.0	1.9	2.0
경상수지	US\$십억	9.8	1.99	1.0	1.9

사. 국가경제 및 재정의 원유수입 의존도

- UAE 정부의 비석유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GDP에서 원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GDP의 30% 이상을 차지.
- 아부다비 정부는 재정수입의 85% 이상을 원유판매 수입에 의존.
- 두바이 정부는 아부다비 정부보다는 원유판매 수입 비중이 적음.
- 기타 에미레이트는 원유 판매 수입이 거의 없어 재정의 약 50% 이상을 아부다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분야별 GDP 비중(1997년 기준)

(단위 : US\$백만, %)

분 야	금 액	점유율
원 유	14,625	32.4
제조업	5,385	11.9
공공 서비스	5,350	11.8
도·소매 무역	5,038	11.1
부동산, 영업	4,467	9.9
건 축	3,825	8.5
통신, 운송	3,183	7.0
금융, 보험	2,820	6.2
기 타	510	1.2
합 계	45,203	100

아. 유가하락 관련 UAE 정부의 주요 경제·무역정책 변화

1) 전력·수도 분야 민영화 및 외국 자본 유치

- 각 에미레이트 정부는 정부 보조금 축소를 위해 현재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력 및 수도청의 민영화와 외국 자본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아부다비 정부는 아부다비 전력청(Abu Dhabi Electricity & Water) 민영화 추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UAE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EMS Energy사에 대해 Taweelah A2 프로젝트의 운영 및 40% 주식 참여를 허용하였음.
- 현재 추진중인 아부다비 전력·수도청의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타 에미레이트도 본격적으로 민영화를 시행할 전망.

2) 계획중인 프로젝트 비용 삭감 및 보류

- UAE중 가장 재정이 풍부한 아부다비 정부도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재정을 긴축하기 시작.
- '98년 7월 아부다비 정부는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투자계획 금액중 35%를 감액한다고 발표.
- 약 US\$10억에 이르는 몇몇 비핵심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보류됨.

3)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참여 유도

- UAE에서는 처음으로 두바이 정부가 원유 및 가스 downstream 석유화학 분야에 Emirates Basic Industries(Sinaat)라는 Joint- Stock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의 55%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할 예정임.
- 나머지 45%는 두바이 정부와 UAE 산업은행 등 100여개의 발기사에 매각될 예정임.
- 아부다비 정부도 이와 유사하게 원유 및 가스 downstream 석유화학 사업에 민간자본 참여 가능성을 검토중임.

2. 국제유가 하락 추세에 따른 수입시장 변화 동향

가. 주요 수입업자의 반응

1) 직물, 섬유

- 직물 에이전트인 R사의 S씨에 따르면, 직물의 주요 시장은 CIS,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이라고 함.
- 유가 하락으로 인한 영향은 많이 받지 않으나 CIS 외환위기 및 이란 리알화 평가 절하로 '98년 8월 이후 구매 수요가 거의 없었음.
- '99년 1월부터 CIS 바이어들의 재고 물량이 감소하면서 구매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함.

2) 자동차부품

- 샤자에 위치하고 있는 Al Ekha Autopart사의 Fouad씨에 따르면, '98년은 중고 자동차 값이 하락하면서 내수 및 아프리카, 중동 인근국의 중고 자동차 및 부품 수요가 증가했다고 함.
- '99년은 유가하락이 지속되면서 UAE 내수 및 중동 인근국의 수요가 약간 감소될 것이나 재수출 수요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 가정용 전자제품

- King Store의 Benjamin씨는 전자제품 주요 재수출 시장인 CIS 및 이란의 외환 위기로 수요가 호황기인 '96년에 비해 50- 60% 감소한 상태라고 함.
- UAE 내수 시장도 두바이를 제외한 기타 에미레이트는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함.
-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원유 판매 수입이 주 재원인 CIS 및 이란의 재수출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이라크 시장이 '99년내에 개방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라크 시장 개방시 수요가 다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 건축기자재

- Asia Merchant Building Materials Co.의 Lenny씨는 건축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중소 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유가하락으로 각 에미레이트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면서 불요불급한 건축사업을 보류하고 있고 은행들도 건축분야에 대한 여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고 함.

- 특히, 일부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발주 회사로부터의 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나. 소비자 구매동향

1) 신규 오더 보류

- CIS, 이란, 중동 인근국, 파키스탄 등 주요 재수출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바이어들의 재고가 누적되어 두바이 바이어들의 구매가 '98년 하반기 이후 거의 중단된 상태임.
- 최소한의 오더만 하면서 재수출 시장 수요 변화를 주시중.

2) 외상 거래 중지

- 두바이 바이어들은 관례적으로 재수출 시장 바이어들과 30-90일 정도의 외상 거래를 해왔음.
- 그러나 재수출 상대국들의 외환 위기로 자금 송금이 원활치 못하자 아주 신용이 양호한 일부 바이어들을 제외하고는 외상 거래를 중단하고 있음.

3. 수출 유망품목

가. 기존 유망 품목

섬유, 자동차, 철강, 담요, 냉장고, 에어컨, 핸드폰, 무선통신 기기, 컴퓨터, CD롬, 석유화학제품, 금장신구, 운동화, 냉·온수기, 문구류, 자동차용 배터리, 사출기, 포장기기, 베어링, 안경테, 건축자재, 고무벨트, 타폴린, 위성수신기, 어망, 앨범, 오일필터, 밸브 등

나. 향후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1) 무선통신기기

- '94년 통신시장 개방이래 연 평균 5-6%의 성장 지속.
- UAE 정부의 통신 시설 확장 및 신규 기술 도입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도 지속 성장이 예상됨.

2) 컴퓨터 주변기기

- 수요가 연 평균 5%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
- 한국산 컴퓨터는 주변기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CD롬과 모니터를 중심으로 진출이 유망.

3) 금장신구

- 두바이가 세계 유명 금 유통 센터로 부각되면서 중동 인근국, 인도, CIS 등의 대 두바이 금장신구 구매 급증.
- 한국산 금장신구의 품질 우수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심 급증.

4) 위성방송 수신기 및 방송장비

- 파키스탄, 이란, 아프리카 지역의 위성 방송 수신기 수요 증가 및 UAE의 케이블 TV 도입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됨.

5) 포장기기

- 식품 관련 산업이 연간 12%의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식음료를 벌크로 수입하여 UAE에서 가공 포장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어 포장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됨.

4. 대 UAE 수출 대금 지불 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가. 대 UAE 수출대금 지불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분석

- UAE의 금융 및 외환 현황은 타국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특히 아부다비 정부는 약 US\$1,000억을 외국에 투자하고 있어 UAE 정부 자체의 디폴트 선언 및 수출 대금 지불 지연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재수출 시장 침체로 두바이 소재의 많은 바이어들이 금융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신규 바이어와의 거래시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대 UAE 거래시 유의사항

1) D/A, D/P 조건의 수출은 피해야

- 최근 국내 수출업체들은 현지 수입상들과 D/A, D/P조건의 거래를 하다가 수출대금 회수에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특히, '98년 CIS 외환위기로 섬유 및 전자제품을 취급하는 두바이 유력 바이어들이 CIS 바이어들로부터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면서 부도를 내고 피신한 경우가 많이 발생한 바, D/A, D/P 조건의 수출은 가급적 피해야 함.

2) 선적서류 작성에 유의해야

- UAE는 중계무역 국가로서 재수출시장 불황시 market claim이 빈발하고 있음.
- 특히, 선적 서류 하자를 빌미로 대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또는 큰 폭

의 가격 할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람불 L/C 조건의 수출이라 하더라도 선적서류 작성에 유의해야 함.

-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신용장 조건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전에 수정을 해야 함.
- 아래 내용들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서류 작성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신용장상의 문구로서 L/C 개설은행으로부터 unpaid가 많이 접수되는 사례들임.

☞ UAE 소재 은행 발급 L/C 독소조항 사례 ☞

- Certificate issued by Korean Port Authorities at the port of loading
- Certificate from the carrier, master, or their agents issued after the date of sailing of the carrying vessel from the port of loading
- Bill of Lading issued by at the port of loading
- Bill of Lading showing shippers load and count not acceptable
- Fax transmission report is accompanied the original documents
- Relevant posatal receipt is accompanied the original documents
- Relative courier receipt is accompanied the documents
- In case of LCL shiment : B/L상에 CY/CY

3) 독점 에이전트 계약에 신중해야

- 대부분의 중동시장이 에이전트 시장으로 에이전트를 잘 선정하는 것이 현지 시장 진출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음.

- 첫 상담시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들은 회사 규모 및 마케팅 능력을 과대 포장하여 국내업체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한번 체결한 에이전트 계약은 쉽게 파기할 수 없으므로 2-3년간 거래를 하면서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업계의 대응 방안

1) 두바이 소재 은행을 통한 L/C 요구

- 두바이는 전체 수입액중 약 70% 이상을 재수출하는 관계로 일부 바이어들은 두바이가 아닌 제 3국으로부터 L/C 개설을 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수출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 등을 설명하여 가급적 두바이 소재 은행을 통한 L/C 개설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가급적 전문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우수한 은행의 L/C 요구

- UAE도 경제규모에 비해 은행이 많아 은행들간의 경쟁이 치열함.
- 만약의 경우에 대비, 전문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 및 수익율이 우수한 은행이나 외국 유명 은행의 L/C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IV. 이란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구조 현황

1) 경제성장률

- OPEC 회원국으로 석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 원유에 대한 국제 수요 및 시세의 변동에 따라 경제성장이 큰 영향을 받음.
- '80년부터 시작된 이라크와의 8년간에 걸친 전쟁 및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86년 이래 3년 연속 침체 국면을 보임.
- '88년 7월 이라크와의 종전, 걸프사태 이후 유가의 단기 급등 등으로 '90년과 '91년에는 11% 이상의 고도 성장을 기록.
- '93년 이후 외환 통제, 긴축정책,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성장률 둔화.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

연 도	'93	'94	'95	'96	'97
경제 성장률	2.6	1.8	4.2	5.9	3.0

자료원 : EIU

2) GDP

(단위 : US\$억)

연 도	'93	'94	'95	'96	'97
G D P	738	734	1,054	776	945

자료원 : 중동편람, EIU

3) 1인당 GDP

(단위 : US\$)

연 도	'93	'94	'95	'96	'97
1인당 GDP	1,261	1,240	1,728	1,244	1,481

자료원 : 중동편람, EIU

4) 무역수지

- 석유 수출이 총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원유의 생산 규모 및 국제 시세 변동에 따라 무역수지가 큰 영향을 받음.
- '90년에는 걸프사태에 따른 유가의 단기 급등과 석유 수출 증가에 힘입어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91년 이후 3년간은 적자로 반전.
- 외환 할당제 등 긴축정책에 힘입어 '94년 이후로는 다시 흑자로 반전.
- 주요 수출품은 원유, 카펫트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수송장비, 기계, 철강, 공산품 등임.

수출입 추이

(단위 : US\$백만)

연 도	92/93	93/94	94/95	96/96	96/97
수 출	19,868	18,080	19,428	19,600	20,900
수 입	23,274	19,287	12,617	13,500	13,000
수 지	- 3,406	- 1,207	6,811	6,100	7,900

자료원 : 이란 중앙은행

5) 주요 산업

가) 산업 구조

(단위: %)

연 도	농업	석유 · 가스	광공업	건설업	기타 · 서비스
1983	13.1	13.2	14.4	3.5	55.8
1991	14.5	17.2	19.7	2.1	46.5
1996	21.2	14.2	19.4	4.2	41.0

자료원 : 중동편람, EIU

나) 석유산업

- 총수출의 80% 정도를 차지.
- '96년 초 기준 원유의 확인 매장량은 약 930억 배럴로 세계 매장량의 9.3% 차지(세계 4위).
- 석유 수출의 증대를 위해 국내 에너지원 대부분을 가스로 대체할 계획.
- 석유산업 위주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제조업 육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석유, 철강 등 기간 산업을 제외한 750여개 국영 기업의 민영화를 추진.

다) 비석유 부문

- '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붐에 편승한 무분별한 수입 증가로 제철, 기계, 가전제품 등 수입대체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음.
- 특히 '79년 이슬람 혁명에 따른 대규모의 고급기술 인력 및 전문 인력의 해외 유출과 산업 국유화 정책으로 인해 비 석유부문의 성장은 정체를 보여 옴.
- 그 결과 비석유부문의 수출은 카페트, 식료품, 수공업품 등 일부 품목에 지나지 않으며, 원부자재와 자본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6) 경제적 강점

- 석유, 석탄 등 천연자원 풍부

7) 경제적 약점

- 석유 일변도의 산업구조

- 기술인력 부족

나. 대외거래 동향

이란의 대외거래 동향

구 분	단 위	1995	1996	1997
수 출	US\$억	196.0	204.0	207.5
수 입	US\$억	135.0	144.0	160.2
외 채	US\$억	229.6	170.0	116.1

자료원 : EIU

- '96년 기준 이란의 주요 수출 상대국은 일본(13.5%), 이탈리아(8.1%), 한국(6.8%), 남아공(6.1%), 프랑스(5.3%), 스페인(4.0%) 등이며, 주요 수입 상대국은 독일(14.9%), UAE(8.3%), 일본(6.0%), 아르헨티나(5.8%), 프랑스(5.1%), 영국(4.8%) 등임.
- 95/96회계연도 기준 이란의 최대 수출품은 원유로서 전체 수출액의 67.4%를 차지하며 이밖에도 카페트와 과일류 등의 수출이 많은 편임.
- 주요 수입품은 운송기기 및 기계류 등을 비롯, 식품류, 화학제품, 철강, 금속제품 등.

주요 품목별 수출입 실적

(95/96년기준, US\$백만)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비 중	품 목	금 액	비 중
원 유	13,100	67.4%	운송기기, 기계류	2,534	20.1%
카페트	1,384	7.1%	식품류	2,446	19.4%
과일류	674	3.5%	화학제품	2,023	16.0%
혁제품	115	0.6%	철강, 금속제품	370	2.9%

자료원 : 이란 중앙은행

다. 국가경제 및 재정의 원유수입 의존도

- 총수출의 85% 이상이 원유 수출이며 정부 재정의 50% 이상을 원유 수출에 의존할 정도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재정수지는 '90년 이후의 국제유가 회복과 긴축 정책의 실시로 '93년 부터 균형을 유지하여 옴.
- 그러나 '98년에는 악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 10월 14일 이란 의회는 적자 규모 60억 달러에 이르는 '98년도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98/99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63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라. 환율정책 및 환율 동향

- 이란은 현재 복수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동 제도를 2000년 3월 까지 유지할 계획이며 그 이후는 변동환율제도 도입등을 포함한 보다 합리적인 환율제도 실시를 고려중에 있음.
- 공정기준환율은 석유 및 가스 수출, 필수 상품 및 용역의 수입, 외채 상환,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 등에 적용됨.

- 수출환율은 95년 5월 이후 1달러당 3,000리얄로 고정되어 왔는데 비석유 수출 및 공정기준환율이 적용되지 않는 공적 경상거래에 적용함.
- 실질환율은 비석유 수출과 수입외환증서가 필요한 민간의 경상거래에 적용되며 수출환율과 수입외환증서환율을 합한 것임.
- '98년 10월말 현재 공정기준환율은 1달러당 1,750리얄, 수출환율은 3,000리얄이며, 98년 9월말 현재 실질환율은 1달러당 5,720리얄, 암시장환율은 6,200리얄임.
- 특히 암시장 환율은 최근 이라크 위기의 여파로 급등, 98년 11월 11일 현재 1달러당 7,100리얄에 이르고 있음.

마. 대외채무 현황 및 전망

- '98년 7월 기준 이란의 대외 총외채는 US\$123억이며, 이중 '99.3.20한 만기도래하는 단기외채 규모는 US\$40억임.
- CBI 관계자에 따르면, US\$30억 규모의 Bridge Loan 도입 성사시 98/99 회계연도 단기 외환부족분은 해결되며(나머지 US\$10억은 외환보유분으로 충당) 국제유가가 현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다음 회계연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함.
- 현재 유가하락에 따른 60억불 이상의 재정적자 및 외환부족으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세법 개정, 정부보조금 정책의 개선, 국영 기업의 민영화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지나친 원유수출 수입에 대한 의존과 지속적인 저유가 추세가 현재 이란의 외환사정 개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음.

바. 대외 지불 능력

- 이란의 경상수지는 '97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했으며, '98년에도 저유가가 지속되어 1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외환보유고는 '9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이란의 3.2개월치 수입액에 해당하는 51억달러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98년 들어 외채 상환액 증가 등으로 인해 전략적 차원에서 일정액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기본준비금(core reserves)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음.
- 대외 채무와 관련해서는 '94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상황이 연체되어 오던 단기 외채의 상당 부분이 중장기 공적 외채로 전환되어 단기 외채 비율이 '93년의 75%에서 '96년의 24%로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93년의 경우 대외 채무액이 GNP의 33%에 이르렀으나 '97년말에 이르러서는 GNP의 12% 수준인 약 116억달러로 축소됨.
- '98년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의 급감에 따라 외채상환 부담이 상당히 과중할 것으로 전망되어 왔는데, '98년 9월말부터 외채상환이 상당 부분 연체되고 있어 외환위기 발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함.

사. Bridge Loan 도입 추진 상황

- 이란은 '98년 9월 독일에 대한 외채상환이 지연되면서 외환부족 사태가 표면화되기 시작함.
- 이에 CBI(이란 중앙은행)는 독일, 이태리 및 일본과 원유를 매개로 한 Bridge Loan 도입을 추진중이며 그 규모는 3국 공히 US\$10억씩 총 US\$30억임.
- CBI 관계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총 DM16억의 Bridge Loan 도입이 LIBOR+1%미만의 이자율로 타결되었다고 하며 독일로부터의 Loan 도입 성공을 모델로 하여 이태리 및 일본으로부터의 Loan 도입도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함.

아. 주요경제 지표

이란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5	1996	1997
GDP	US\$백만	72,800	90,000	94,533
1인당GNP	US\$	1,174	1,406	1,482
실질성장율	%	5.1	2.7	3.0
인플레이션	%	35.2	49.2	17.7

자료원 : EIU

- 이란은 '97년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심각한 외환부족 현상을 겪어옴.
- 98/99 회계연도('98.3.21- '99.3.20) 및 99/2000 회계연도의 예상 GDP 성장률은 1%에 불과하며 20%에 이르는 고실업률로 연간 1백만명의 신규 구직자가 발생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율도 매우 높아 95/96 회계연도에 49.4%에 이르렀던 물가 상승률이 96/97 회계연도에는 23.3%로 다소 진정되는 듯했으나 98/99 회계연도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여 25%이상에 이를 전망이다.
- 물가 상승율은 '94년 외채 위기 이후 긴축 정책의 실시로 이전에 비해 다소 둔화(97년 17.7%) 추세를 보인 바 있으나 99년에는 경화 부족현상 심화에 따른 생필품 부족과 복수 환율제 등 불합리한 경제정책의 실시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 인플레이션율이 20%에 이를 전망이다.

2. 한- 이란 교역 관계

- 우리의 대 이란 무역적자는 '94년 10.2억불, '95년 9억불, '96년 7.5억불로 다소 개선되어 왔으며 '97년에는 11.8억불로 다시 확대되었으나 '98

년에는 2.3억불로 크게 감소.

- 우리의 대 이란 수입에서 원유 및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96년 기준 96.8%)이 너무 커 역조 개선에 어려움이 있음.

한국의 대 이란 수출입 실적

(단위 : US\$백만, %)

구 분	1996		1997		1998	
	실 적	증가율	실 적	증가율	실 적	증가율
수 출	884	151.1	611	- 30.9	767	25.5
수 입	1,634	25.9	1,787	9.3	994	- 44.4

(자료원 : KOTIS)

* 주요 수출품('97년) : 자동차(21.6%), 석유화학제품(10.1%), 전자부품(8.0%)

* 주요 수입품('97년) : 원유(89.7%), 석유화학제품(4.8%), 액화가스(4.0%)

3. 대 이란 수출 대금 지불 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가. 대 이란 수출대금 지불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분석

- '99년 1월, 이란이 한국 수출기업에 대해 1억달러 규모 미수금 결제 기한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란의 외환사정 악화가 표면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미 이란에 대해 수출을 했거나 현재 수출을 하려고 하는 국내 업체들도 대금 미회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이란의 상기 지불 연기 요청은 '93년도의 수출 대금중 '94년 이후 분할상환 되어온 금액중 잔여분에 대한 것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에 대해 취해진 조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

- 따라서 동 건은 '94년도 리스케줄링 당시 관련되어 있던 16개사에 국한된 조치이며 '98년 하반기 이후 발생하고 있는 수입대금 결제 지연, 앞으로 개설 예정인 신용장 결제 및 건설사 미수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임.
- 현재 이란 정부는 대외채무 변제와 외환보유고 확충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최근 진행중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으로부터의 원유를 매개로 한 US\$30억 규모의 차관 도입을 통해 현재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수출 대금을 우선 결제할 방침임.
- 그러나 이란 정부의 이러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란의 은행에서 개설된 L/C는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서 네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이란 중앙 은행측에서 지불을 연기하고 있어 수출업체들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금 미회수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나. 대 이란 수출 대응 전략

- 이란은 중동 지역 국가들중 UAE,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은 우리의 제 3위 수출 상대국으로 지난 '97년 말 외환 위기 발생 이후 우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나라임.
- 현재 이란의 은행에서 개설된 L/C는 수출업체의 거래은행에서 네고가 이루어진 후에도 이란 은행측에서 지불을 연기하고 있어 수출업체들이 자금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임.
- '98년 10월 이후부터는 50만불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신규 L/C 개설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기개설된 L/C에 대해서도 수입대금 결제가 최소 40일 이상 지연되고 있음.
- 또한, 대금 지불이 연기되는 가운데서도 이란 중앙은행은 정부 구매 건에 대한 지불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개별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개설된 L/C는 지불이 더욱 더 늦추어지고 있으며 수출 대금 미회수

의 위험성도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우리는 현재 이란이 외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이란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만은 없는 입장임.
- 중동 지역 국가들은 의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어려울 때 자신을 외면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이 호전되었을 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우리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란에 대해 관심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며 단기적 시각에서 이란과의 거래를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향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 상황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한 대응을 해야할 것임.
- 개별 업체의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란과의 거래를 적극 추진하는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적어도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이란의 개별 바이어와 거래하는 경우 이란의 은행에서 개설된 L/C를 제 3국 은행에서 재보증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자금 운용상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두바이등 외환 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중동 인근국 은행의 계좌에서 L/C를 개설토록 유도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이란 바이어들 중에는 두바이나 프랑스 등의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바, 이 지역의 은행에서 개설된 L/C에 대해서는 안심해도 좋을 것임.

V. 리비아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수출입 동향 및 전망

- 석유수출이 전체 수출의 95%를 점유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 '98년은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리비아의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99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수입의 경우 철저한 계획경제에 의한 국영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수출입 추이

(단위 : US\$억)

구 분	1996	1997	1998(추정)	1999(전망)
수 출 (원유수출)	99.4 (95.4)	90.9 (86.2)	68.0 (65.0)	65.0 (62.0)
수 입	53.2	56.3	45.0	45.0

자료원 : 리비아 통계청 및 KOTRA 트리폴리 무역관

나. 재정수지 동향 및 전망

-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재정수지의 경우 균형 내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98년은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당초 배정 예산의 50%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99년에는 2월 현재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석유수출로 인한 수익이 전체 재정의 70% 내외를 점유할 정도로 절

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정부의 재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재정수지 현황

(단위 : US\$억)

구 분	1996	1997	1998
세 입	94.8	149.4	136.2
세 출	94.8	149.4	136.2

자료원 : 리비아 관보

다. 외환보유고 현황 및 전망

- 리비아의 외환보유고는 US\$50억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유가의 하락과 UN 제재의 지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로커비 사건이 전향적으로 해결되어 리비아에 대한 UN 제재가 해제될 경우 해외 자산 동결 조치가 해제되어 리비아 정부의 외환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97년 이후의 외환보유고에 대한 통계는 입수가 불가능하나 US\$50억 내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외환보유고 현황

(단위 : US\$억)

연 도	1993	1994	1995	1996
외환보유고	54	50	47	49

자료원 : 리비아 중앙은행

라. 대외채무 현황 및 전망

- 리비아의 대외채무는 US\$40억 내외로 발표되고 있음.
- '97년 이후의 대외채무 현황은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국가가 철저한 계획경제 체제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대외채무 현황

(단위 : US\$억)

연 도	1993	1994	1995	1996
대외채무	43	39	39	42

자료원 : 리비아 중앙은행

마. 국가경제 및 재정의 원유수입 의존도

- 리비아는 석유수출이 전체 수출의 95%를 점유하고 재정의 원유수입 의존도가 70%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 및 재정의 원유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9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UN의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지속과 '98년 이후의 국제유가 급락은 리비아의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석유개발 및 탐사와 관련된 제반 장비 및 부품이 UN 제재품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석유생산 관련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져 채산성의 악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음.
- 리비아의 석유생산과 관련된 손익분기점이 US\$7 내외로 알려지고 있어 현재의 유가 수준인 US\$10 내외에서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석유 수출로 인한 이익이 제로에 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UN 제재가 계속되고 국제유가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99년 리비아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임.

바. 유가하락 관련 리비아 정부의 주요 경제·무역정책 변화 내용

- 미·영과의 외교적 마찰 및 정치적인 이유로 10년 이상 지연되어 온 로커비 사건의 해결을 위해 최근 리비아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갖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해결이 임박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음.
- 최근 리비아 정부의 입장이 급선회한 이유는 정치적 목적보다는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리비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경제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UN 제재를 풀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유가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98년과 마찬가지로 '99년에도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특히, 국책 프로젝트의 추진 시기가 조정되고 수입 외화예산 배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제유가 하락 추세에 따른 수입시장 변화 동향

가. 주요 수입업자의 반응

- 리비아의 경우 국영무역을 무역의 기본 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국영기업 내지 민간에 대한 수입 외화예산의 배정이 줄어들 것이 확실시 되며, 이는 시장에서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으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92년 UN 제재 시작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온 민간의 자기 자본에 의한 무역 참여가 현재의 30% 내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수요의 부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나. 소비자 반응

- 국가가 내핍경제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는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됨.
-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고급품 내지 사치품의 수요는 줄어들고 중저가품 내지 불요불급한 품목에 대한 수요는 제한할 것으로 보임.

3. 수출 유망품목

가. 기존 유망 품목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섬유 제품, 전자 제품, 기계 및 공구, 잡제품 등

나. 향후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향후 UN의 대 리비아 제재가 해제될 경우 유망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철강 및 금속,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등이 있음

4. 대 리비아 수출 대금 지불 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가. 대 리비아 수출대금 지불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분석

- 국영무역 체제의 리비아에서는 중앙은행의 철저한 외환 통제에 의해 L/C 개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L/C 자체의 문제는 없음.
- 단, L/C의 조건에 80-90%는 at Sight이나 10-20%는 상품 인도 후 지불조건이기 때문에 도착 즉시 지불한다는 조건 명시에도 불구하고 외환 부족으로 1개월 이상 장기간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은

배제할 수 없음.

나. 대 리비아 거래시 유의사항

- 10- 20%는 상품 인도 후 지불하는 조건이므로 대금회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시 동 포션을 가격에 적정히 반영하여야 함.
- 민간 무역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T/T 혹은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 그러나 바이어와 신용(외상)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용도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이면 이러한 거래는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업계의 대응방안

-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리비아 정부의 수입 외화예산 배정 축소가 확 실시 되고 있어 수입시 우선 순위가 배정되고 있는 생필품을 위주로 수주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정부가 철저한 외환 통제에 의해 수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대금 미회수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음.
- 리비아 정부는 외화예산이 없으면 원천적으로 L/C를 개설하지 않음.

VI. 오만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구조 현황

1) 경제성장률

- '64년 석유 수출이 시작된 이래 석유부문이 산업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국가 경제가 국제 원유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 '70년- '85년 동안에는 세계적인 고유가 추세에 힘입어 연 평균 10% 이상의 고도 성장을 시현.
- '86년 이후 유가 하락으로 2년 연속 침체를 보이기도 했으나 걸프전 종식 이후 석유 수출 호조로 꾸준한 성장세 지속.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

연 도	'93	'94	'95	'96	'97
경제 성장률	6.1	3.8	4.6	3.5	2.3

자료원 : EIU

2) GDP

(단위 : US\$억)

연 도	'93	'94	'95	'96	'97
G D P	111.7	113.1	120.5	133.4	159.4

자료원 : 중동편람, EIU

3) 1인당 GDP

(단위 : US\$)

연 도	'93	'94	'95	'96	'97
1인당 GDP	5,613	5,411	5,579	6,023	7,053

자료원 : 중동편람, EIU

4) 무역수지

- 전통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원유의 국제시세 변동에 따라 흑자폭이 큰 영향을 받음.
- 주요 수출품은 원유, 금속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 공산품, 식료품 등임.

수출입 추이

(단위 : US\$백만)

연 도	'92	'93	'94	'95	'96
수 출	5,555	5,365	5,540	6,285	7,606
수 입	3,627	4,030	3,830	3,905	4,900
수 지	1,928	1,336	1,710	2,380	2,706

자료원 : 중동편람

5) 주요 산업

가) 산업 구조

(단위: %)

연 도	농수산업	석유·가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기타
1990	3.3	49.6	3.9	3.1	40.1
1996	3.4	42.4	4.3	2.2	47.7

자료원 : 중동편람, EIU

나) 석유·가스 산업

- 석유·가스 산업은 80년대 중반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되어 옴('80년 62% → '96년 42.4%).
- '98년 1월 기준 가채 원유 매장량은 약 54억 배럴이며, 가채 연수는 약 20년임.
- 오만은 OPEC 회원국이 아니므로 산유량 Quota 제한이 없으나 OPEC의 정책에 대체로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다) 제조업

-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제조업 부문의 성장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옴.
- 그러나 국내 시장의 협소, 수입 개방의 확대 등으로 인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음.
- 주요 업종은 동제련업, 시멘트, 식품가공 등임.

6) 경제적 강점

- 석유 및 광물자원 풍부

7) 경제적 약점

- 산업구조 취약
- 각종 용수 부족
- 노동력 부족

나. 수출입 동향 및 전망

구 분	단 위	1996	1997	1998(추정)	1999(전망)
수 출	억불	73	76	58	50
- 석유부문	억불	59	58	38	28
(물 량)	(백만배럴)	(298)	(305)	(305)	(305)
- 비석유부문	억불	14	18	20	22
수 입	억불	47	52	56	58
무역수지	억불	26	24	2	- 8

- 유가 약세의 영향으로 '98년 무역수지 흑자는 US\$200백만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98년 상반기에는 수출 US\$2,757백만, 수입 US\$2,718백만으로 무역흑자 규모가 US\$39백만에 불과.

- '99년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US\$800백만에 이를 전망.

다. 재정수지 동향 및 전망

(단위 : 억불)

연 도	1996	1997	1998(추정)	1999(목표)
세 출	59	60	60	56
세 입	52	59	52	40
수 지	- 7	- 1	- 8	- 16

- 석유수입 감소 및 세출 증가로 '98년 재정수지 적자는 US\$809백만(세입 US\$5,220백만, 세출 US\$6,029백만)으로 '97년의 US\$104백만 적자에 비해 크게 확대됨.

- 유가 약세 지속에 따른 석유수입 감소로 '99년에도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배럴당 US\$9 기준 99년 예산은 세입 US\$3,966백만, 세출 US\$5,607

백만으로 US\$1,641백만의 적자로 편성.

라. 외환보유고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불)

연 도	1996	1997	1998(추정)	1999(전망)
외환보유고	20	21	18	15

마. 대외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불)

연 도	1996	1997	1998(추정)	1999(전망)
대외채무	29	39	45	53

바. 국가경제 및 재정의 원유수입 의존도

(단위 : %)

연 도	1996	1997	1998(추정)	1999(전망)
국가경제	41.2	39.1	29.4	22.2
재정수입	74.0	77.1	69.1	59.1

주) 국가경제 및 재정수입은 각각 국가경제와 재정수입에서 원유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임.

- '98년 경상 GDP는 '97년 대비 9.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배럴당 평균 유가가 '97년의 US\$18에서 '98년에는 US\$12로 감소.
- '99년 경상 GDP는 '98년 대비 5.6%의 감소를 보일 전망.

- 배럴당 평균 유가가 '98년의 US\$12에서 '99년에는 US\$9로 더욱 약세를 보일 전망.

원유 관련 주요 지표 동향 및 전망

구 분	단 위	1997	1998(추정)	1999(전망)
평균유가	달러/배럴	18.62	12.60	9.00
원유생산	백만배럴	330	330	330
원유수출	백만배럴	305	305	305
경상 GDP	억불	158	143	135
- 원유	억불	62	42	30
- 기타	억불	96	101	105
경상 GDP 성장율	%	3.4	- 9.5	- 5.6

사.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4	1995	1996	1997
경상 GDP	RO백만	4,967	5,307	5,874	6,075
경상 GDP 성장율	%	3.4	6.8	10.7	3.4
불변 GDP	RO백만	4,564	4,784	4,923	5,238
불변 GDP 성장율	%	3.8	4.8	2.9	6.4
소비자물가상승율	%	- 0.7	- 1.2	0.3	- 0.2
인 구	백만명	2.08	2.14	2.22	2.26
석유 총생산	백만배럴	297	313	325	330
(일 당)	(천배럴)	(810)	(852)	(885)	(904)
석유 총수출	백만배럴	272	287	298	305
(일 당)	(천배럴)	(745)	(786)	(816)	(836)
환 율	RO : US\$	0.3845	0.3845	0.3845	0.3845

(자료원 : Statistical Year Book 1997, Ministry of National Economy)

아. 유가하락 관련 주요 경제·무역 정책 변화 동향 및 전망

1) 적자예산 편성

- 배럴당 US\$9의 평균 유가를 기준, 세입 규모를 '98년 대비 24.0% 감액하여 편성.
- 세출 규모도 '98년 대비, 7.0% 감액 편성.
 - 보건, 교육 및 사회안전 관련 세출은 '98년 수준 유지.
-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98년 대비 대폭 확대 편성.
 - 유가 약세가 지속될 경우, 재정적자를 국가 일반 유보기금(State General Reserve Fund)에서 인출, 충당.

2) 세입 부족 보전을 위해 수입관세 및 법인소득세 대폭 인상

- 보석, 대리석, 향수 및 담배 등 사치성 소비재 및 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수입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5%에서 15%로 인상.
-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5%에서 10%로 인상.
- 25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5%에서 15%로 인상.
- 법인소득세를 7.5%에서 12%로 인상.

3) 전망

- 오만 정부는 국내경기 침체 및 재정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의 석유부문 의존 탈피 및 산업구조 다변화 차원에서 그동안 적극 추진해 왔던 항만개발, 가스 파이프라인, 정유설비, 석유화학설비, 비료설비 및 알루미늄설비 등 70억불 규모의 SOC 확충 및 기간산업 개발 프로젝트는 민자유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경기침체 장기화, 재정수지 적자 확대, 무역수지 흑자전망 불

투명, 외채 원리금 상환 부담, 경상수지 적자 확대 및 이로 인한 평가절하 압력 가중, 세계 경제전망의 불투명에 따른 민자유치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프로젝트 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2. 국제유가 하락 추세에 따른 수입시장 변화 동향

- 국제유가 약세의 장기화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 및 가처분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만의 수입업자들은 최근 오만 정부가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일부 고가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인상 부담이 여타 저가 품목에 비해 매우 높아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이 수입 주문을 연기하는 등 시장상황 변화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
- 수입업체 관계자들에 의하면, 고가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 탄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저소득층 소비자를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수출 유망품목

가. 기존 유망 품목

자동차, 가전제품, 타이어, 자동차 부품, 배터리, 컴퓨터 및 주변기기, 게임 기기, 전기기계 및 장비, 변압기, 케이블, 통신장비 및 기기, 건설장비 및 건축기자재, 파이프, 밸브, 사무기기 및 용품, 가구, 문구, 제지 및 판지, 병원용품, 플라스틱 제품, 스포츠 레저용품, 선물용품 등

나. 향후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중소형 산업설비 및 기계류(중고 포함)

- 석유 부문 의존형 경제구조 탈피 및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오만 정부의 적극적인 중소형 공업화 프로젝트 추진.
-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변화등을 감안할 때, 중고를 포함한 중소형 산업설비 및 기계류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품목은 1회용 주사기 설비, 어망 설비, 콘크리트 못 설비, 제지 설비, 의료용 솜 설비, 중고차량 및 건설장비, 제지변환 설비, 위생용품 설비, 직물 설비, 인쇄기계, 천막 설비, 제약 설비, 컨테이너 설비, 부속용품 설비, 알루미늄 제품 설비, Compact Disc 설비, 케이블 설비 등임.

4. 대 오만 수출 대금 지불 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가. 대 오만 수출대금 지불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분석

- 현재까지 오만 수입업체의 특기할 만한 수출대금 지불 지연 및 수출업체의 수출대금 미회수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국제유가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수입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시장 상황의 악화로 인해 수출대금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나. 대 오만 거래시 유의사항

○ 에이전트 선정시 세심한 주의 및 성실한 관리 필요

- 유통구조에서 에이전트의 역할이 매우 높은 점을 충분히 감안, 에이전트 선정시 세심한 주의와 성실한 관리가 필요.

○ 외상거래 조건 수용시 신중 검토

- 오만 수입업체들은 At Sight L/C보다는 Usance L/C와 D/A 또는 D/P 등 외상거래 조건을 요구.
- 첫 거래시부터 외상거래 조건 수용을 고려할 경우에는 수입상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가 필요.

○ 수출 사후관리 철저

- 납기 및 제품사양 절대 준수 및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통한 신뢰 제고 추진.
- "클레임=거래중단"의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도록 클레임 발생시 신속하고 성실하게 대처하는 장기적인 수입상 관리전략이 필요.

다. 업계의 대응 방안

- 수입업체들이 본의 아니게 수출대금 지불을 지연시키거나 수출업체가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무역관을 통해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실시.
- 오만의 은행들은 모두 BIS 비율이 8%를 상회하는 우량 은행들이기는 하나, 무역관을 통해 신용장 개설 은행의 신뢰도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보다 안전.

VII. 이집트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구조 현황

1) 경제성장률

- 석유수출 수입, 해외노동자 송금, 수에즈 운하 통행료, 해외 원조 등을 재원으로 경제개발에 주력한 결과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연 평균 7-9%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
- '87년- '92년간에는 경기가 악화되어 연 평균 4.7%의 성장을 보임.
- '94년 이후 건설, 제조업 분야 등 경제 전반에 걸친 회복세를 보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경제 성장률	3.0	3.8	4.6	4.9	5.3

자료원 : EIU

2) GDP

(단위 : US\$억)

연 도	'93	'94	'95	'96	'97
G D P	466.5	516.1	604.7	725.6	753.5

자료원 : 중동편람, EIU

3) 1인당 GDP

(단위 : US\$)

연 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인당 GDP	826	885	1,021	1,201	1,202

자료원 : 중동편람, EIU

4) 무역수지

- 수입의존적 경제구조와 석유 일변도의 수출상품 취약성으로 인해 매년 만성적인 적자를 보여 옴.
- 최근 관세 장벽 완화로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주요 수출품은 석유관련 제품, 면사 및 직물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운송장비, 식품류 등임.

수출입 추이

(단위 : US\$억)

연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수 출	36.4	31.1	34.6	34.4	35.3
수 입	100.4	81.9	95.6	117.4	130.1
수 지	- 64.0	- 50.8	- 61.0	- 83.0	- 94.8

자료원 : 이집트 통계청

5) 주요 산업

가) 산업 구조

(단위: %)

연 도	농업	광 · 공업	석유 · 가스	무역 · 금융	기타
1987	20.7	16.7	3.8	23.2	35.6
1991	19.6	18.0	5.0	23.0	34.4
1996	16.0	17.6	11.1	20.8	34.5

자료원 : 중동편람, EIU

나) 석유산업

- 석유·가스 부문의 대 GDP 비중은 '87년 3.8%에서 '95년 11.1%로 크게 성장.
- '96년 말 기준 원유 매장량은 약 3.7억 배럴로 추정됨.

다) 제조업

- 80년대 중반까지 국영기업의 비대화(생산의 60-70%)로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옴.
- '91년 들어 IMF 및 IBRD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국영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활발히 전개.
- 주요 업종은 섬유, 식품가공, 비료 등이며, 업종 다양화, 수입대체 산업 및 중화학 공업 육성 등에 주력.

6) 경제적 강점

- 관광자원 풍부
- 양질의 노동력 풍부

7) 경제적 약점

- 식량자원 부족
- 사회간접자본 빈약

나. 국가 경제의 원유수입 의존도

- '98년 6월말 기준 이집트의 원유 매장량은 32억배럴, 1일 생산량은 80만배럴이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32조 입방피트, 1일 생산량은 16억 입

방피트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은 이집트 총수출액의 절반을 차지.
- 현재 원유는 생산량의 절반이 수출되고 있으며 천연가스는 전량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에너지 사용을 점차 천연가스로 전환시키고 있어 원유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 외환부족 현상 발생

가. 개황

- 그간 GDP 700억불 대비 200억불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던 이집트가 관광, 석유, 수에즈운하, 해외근로자 송금 등 주요 외환수입원의 감소로 최근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정부 당국은 이를 이스라엘 투기꾼의 조작과 순례기간 압박에 따른 순례객들의 환전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설득력이 없음.
- 이미 수 년간 고정환율이었던 환율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수입상들의 L/C 오픈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여행자들 역시 마음대로 달러 환전이 안되고 있는 등 외환부족 현상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 변동환율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정책에 의해 강제로 수년간 1달러당 3.39LE(이집션 파운드)라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을 유지해 온 환율이 최근 들어 흔들리기 시작, 현재 은행에서는 3.42LE를 오르내리고 있고 일반 환전소에서는 1달러당 3.45LE로까지 교환되고 있다고 함.
- 수입상들의 L/C오픈도 공기업의 경우에는 아예 생각을 말아야 하고 민간 기업의 경우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현금을 갖다주면서 L/C오픈을 의뢰하면 모를까 기존 방식으로 은행허가를 받기가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님(은행측은 수입상들에게 L/C금액의 100% 입금을 요구).

- 이집트 중앙은행은 대외적으로 자랑스럽게 발표하던 외환보유고 200억불 유지를 위해 시중의 달러를 끌어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반면, 달러부족에 아우성치는 시중은행에게는 과거에는 하루 10만불을 공급했으나 현재는 2천불로 줄여버렸음.
- 달러부족으로 정부와 기업이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서도 시세차익을 노린 보따리 달러장사들은 환전소를 순회하면서 환난을 부채질.

나. 외환부족 요인

- 달러부족현상의 주원인은 주요 외환수입원의 감소에 따른 달러공급 부족 및 수입수요증대, 여행증가 등에 따른 달러수요 과잉에 있음.

주요 외환수입원 감소현황

(단위 : US\$억, %)

수 입 원	1997	1998	증감률
관 광	35	-	-
해외근로자 송금	40	35	- 12.5
석유판매	20	12	- 40.0
수에즈운하 수입	12	8	- 33.3

자료원 : 주간지 Al- Musawwar

- 이집트 최대의 외환수입원중의 하나인 관광수입은 지난 '97.11월 룩소르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악화되더니 현재까지도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이집트는 해마다 이 부문에서 30억불 이상을 거둬들였었는데 '98년 수입액은 매우 큰 타격을 받은 듯 발표되지도 않고 있음.
- 한때 70억불까지 육박했던 해외근로자들의 송금액도 작년에는 세계경제 불황 및 걸프등 진출지역의 자국민화 정책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됨에 따라 수입액이 '97년 40억불에서 '98년에는 35억불로 12.5%가 감소함.

- 특히, 사우디등 걸프지역에서는 이들을 해고시키기 위해 임금을 터무니 없이 삭감하고 있어 향후 동 부문의 감소율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수에즈운하 수입도 세계경제 불황, 특히 동남아 시장의 붕괴로 '97년 12억불에 달하던 것이 '98년에는 8억불로 33.3%가 감소.
- 석유수입도 유가하락에 따라 '97년 20억불이던 것이 '98년에는 12억불에 그쳐 40%가 감소.
- 한편, 달러 수요의 주요인인 수입액은 '97년 131억불에서 '98년에는 165억불로 30%나 급증.
- '98년 아시아 상품들이 경제난으로 인해 값싸게 팔리자 수입상들이 나중에 고가로 팔기 위해 필요 이상의 물건을 일시에 수입함에 따라 발생했으며 일부 수입상들은 이집트인들의 생활 수준에 맞지 않는 사치품도 대량으로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지나친 해외여행도 달러수요에 한 몫 하였는데, '98년의 경우 여행경비로만 20억불이 소비되었다고 함.
- 여행 형태도 과거에는 종교적 이유의 사우디로의 순례여행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제는 구라파등으로의 단순 여행도 크게 늘고 있음.

다. 이집트 정부의 대응책

- 이집트 정부는 달러부족에 따른 환율변동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10억불을 투입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아울러 불필요한 달러 수요를 막기위해 수입수요 및 관광을 억제하고 있음.

- 수입수요 억제를 위해 설탕, 철, 종이, 시멘트, 타이어 등 12개 품목을 수입억제 품목으로 간주함.
 - L/C 오픈시에도 사치품, 소비제품, 내구재(Durable Goods) 등은 과거 L/C금액의 10%만 예치하던 것을 100% 전액 예치토록 조치.
 - 또한 모든 은행에 상품재고 공시를 통해 재고품이 있는 경우에는 L/C 오픈을 최대한 억제할 예정.
- 이와함께 이집트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비록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강력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외화세탁 거래를 주의할 것.
 - 비료, 설탕, 철강, 유리 등은 재고가 많은 바, L/C 개설을 자제할 것.
 - 특정상품에 대한 수입은 수입 전문업체 이외의 업체에게는 100% 수입 보증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L/C 개설을 자제할 것.
 - 외화예금간의 이동을 금지할 것(예 : 미화예금 → 엔 등).
 - 외화대출은 상환시 외화로 할 것(현지화로 상환 불가).
 - 외화예금 후 2주내 인출을 억제할 것.
 - 여행경비 제한은 없으나 현금은 미화 1000불에 한하며, 그외는 여행자 수표, 신용카드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

3. 외환부족 현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가. 최근 이집트 외환부족 현상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이집트 정부의 수입수요 억제책에 따라 현지에 진출해 있는 아국업체들과 출장자들은 한결 같이 '99년 수출을 우려하고 있음.
- 기계류, 생산자재 등을 위주로 수출하고 있는 아국업체 모지사장은 L/C 오픈시 은행들이 사치품인지 기간 시설재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트집을 잡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 '98년부터 동남아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개별 세일즈 출장자들도 수입상과의 상담시 대금지불조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 주로 중소기업체인 이들은 보통 대금중 30%이상을 T/T로 받고 나머지는 L/C로 처리하고 있는데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다보니 주로 은행과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수입상들이 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함.
- '99년도에도 우리 업체들이 박람회, 시개단, 개별 출장 등으로 부단히 이집트 업체들과 상담할 예정이기 때문에 외환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수출에 적신호가 예상됨.
- '98년 우리의 대 이집트 수출은 원화의 평가절하 및 이집트의 수입 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43.9%가 증가한 6억 3,700만불을 기록.

나. 대응 방안

- 이같은 상황하에서 주재국 업체와의 거래시 대금지불 방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수입상의 요구에 의해 대금중 일부를 T/T로 받았을 경우에도 선금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품 제작에 들어가지 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L/C가 최종적으로 오픈된 것을 확인한 후 상품 제작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것임.

4. 수출 유망품목

가. 기존 유망 품목

건설 중장비, 각종 중소형 플랜트, 자동차 부품, 섬유기계, 철강, 문구류, 컴퓨터 및 관련기기, 통신기기, 안경테, 모조 장신구 등

나. 향후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1) 건설 장비

- 이집트에서 건설 산업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며, 정부는 특히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중임.
- 건설장비에 대한 수요는 홍해 연안, 시나이 등 관광지에 각종 위락시설을 건설하게 됨에 따라 민간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신규 공업단지 및 주택단지의 건설도 동 분야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고 있음.
- 건설장비중 Earthmoving 장비는 현재 연간 약 2억불의 수요가 있는데, 향후 남부 이집트 사막 지대를 농지로 개간코자 하는 The New Valley 프로젝트등 대형 국책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수요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이집트의 건설 장비 생산은 전무한 실정이며, 주요 진출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임.

2) 포장 장비

- 이집트의 포장 장비 수요는 '96년 5억불, '97년 6억불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의 30%는 자체 생산으로, 나머지는 아시아, 독일, 이태리, 미국 등지로부터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음.
- 최근까지 포장 장비의 주 공급국은 이태리, 독일 등이었으나 '95년 이후 대만, 한국, 중국 등의 값싸고 비교적 품질도 좋은 제품이 시장 지분을 잠식하고 있음.

- 구체적인 유망 품목으로는 corrugated carton making machinery, semi-automatic vertical and horizontal packaging equipment, shrink wrapping and vacuum packing machinery 등이 있음.

3) 기계 공구

- 이집트의 기계 공구류 시장은 줄, 플라이어, 스페너 등과 같은 hand tool과 전기 모터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hand power tool로 양분되어 있음.
- 현재 동 부문의 연간 수요는 약 3천만불 규모에 불과하지만 이집트 정부가 IMF와 IBRD의 지원하에 각종 산업을 민영화시키고, 노후 시설을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추진중이기 때문에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됨.

4) 의료장비

- 이집트는 의료장비 생산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정부는 지방에 소재한 60여개의 병원을 현대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으며, 향후 2년 이내에 10개의 신규 병원을 건설할 계획도 추진중이어서 동 분야는 매우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인 유망 품목으로는 dialysis equipment & lasers, medical & laboratory equipment, ICU monitoring equipment 등이 있음.

5) 산업용 밸브

- 나일강을 이용한 공업 용수 확충 계획, 환경 개선을 위한 폐수처리 시설 신설 계획, 석유산업 및 건설산업 분야의 신규 수요, 노화 제품에 대한 대체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산업용 밸브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전망.
- 국내 생산업체가 1개사뿐이어서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

- 연간 수입 규모는 8천만불 수준이며, 주 공급국은 이태리, 독일, 미국, 영국 등 주로 선진국임.
- 국제 특허 인증등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할 경우 향후 수출이 매우 유망할 것으로 예상됨.

VIII. 쿠웨이트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황

- 국가 경제 및 재정의 OIL 의존도가 큰 쿠웨이트는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음.
 - GDP의 50%, 정부 재정수입의 90%, 수출의 95%를 OIL에 의존.
- 전세계 원유 매장량의 9% 이상을 가지고 있는 쿠웨이트는 일산 210만 배럴의 OPEC 쿼타에도 불구하고 감산에 공조, 현재 일산 198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음.
 - OIL 수출의 50%가 원유(crude oil)이며 나머지 50%는 가솔린, 나프타 등 석유제품으로 OIL 수출에서의 고부가가치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실정임.
- '96년 배럴당 US\$18.40을 기록했던 쿠웨이트의 원유 수출가는 '97년에는 US\$16.80으로, '98년에는 다시 US\$11까지 하락했고 '99년 들어서는 US\$8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어 OIL 판매 수입이 급감하고 있음.
 - 걸프전 이후 반짝하던 전후 복구 경기를 제외하고는 이라크와의 대치 상태에 따른 중계무역 기지로서의 역할 상실로 구조적인 경기부진 상태를 보여오던 쿠웨이트 경제가 최근에는 유가하락 사태까지 맞게 되어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 '96년 17%에 달했던 명목 GDP 성장률은 '97년 들어 -1%로 돌아섰고 '98년에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그러나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97년 경상수지가 US\$78억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경제가 위기 상황으로까지 치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더구나 OIL 판매 수입으로 재정 수입의 90%를 충당하고 있는 쿠웨이트 정부는 OIL 가격 급락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US\$ 450억 규모의 차세대 기금(Reserve Fund for Future Generation)으로 당분간 적자를 보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차입도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여유를 보이고 있음.

쿠웨이트의 GDP 구조

구 분	비 중	
	1996	1997
OIL	44%	40%
제조업 (정유)	11% (7.7%)	13% (9.8%)
서비스	24%	25%
공공 서비스	21%	22%

자료원 : 쿠웨이트 중앙은행

나. 재정수지

- 걸프전 이후 처음으로 95/96회계연도중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국제유가 하락으로 97/98년중 재정수지가 US\$24억의 적자로 반전된 이래 98/99년에는 US\$70억(GDP의 23% 수준) 이상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실제 재정적자는 US\$40억 수준일 것으로 전망.
- 쿠웨이트 정부는 재정적자 심화에 우려를 표하고는 있으나 재정적자가 당분간 차세대 기금으로 보전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중임.
- 더구나 금융 전문가들은 미국 및 유럽 증권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대부분이 미국 및 유럽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되어 있는 동

기금의 투자 수익만으로도 재정적자분이 커버될 수 있다고 분석중.

쿠웨이트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KD 백만)

회계연도	95/96	96/97	97/98	98/99
재정수입	3,473	4,391	3,608	2,444
재정지출	4,126	3,889	3,978	4,362
재정수지	- 653	502	- 370	- 2,163

* 환율 : US\$1=KD0.3039(98.6.3 기준)

* 98/99년은 편성예산안이며 이전은 실제 집행예산임.

다. 수출입 동향

쿠웨이트의 수출 추이

(단위 : US\$백만, %)

연 도	1996	1997	1998(추정)
총수출	14,770	14,300	10,800
OIL 수출	13,960	13,480	10,000
OIL 비중	95	94	93

- 쿠웨이트의 '97년 수출은 US\$143억이었으며 이중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출이 총수출의 94%인 US\$135억을 기록.
- OIL 수출금액인 US\$135억중 원유가 50%, 석유제품이 50%를 점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인 석유제품의 수출이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
- 쿠웨이트의 경우 원유생산 능력이 일산 240만배럴이며 정유 능력은

일산 90만배럴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원유가격 하락으로 '98년중 OIL(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US\$100억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한편, 쿠웨이트의 상품수입은 '97년의 경우 전년 수준과 비슷한 US\$77.7억을 기록한데 이어 '98년에는 국내 경기부진을 반영, 전년 대비 5% 감소한 US\$74억에 머문 것으로 추정됨.

쿠웨이트의 주요 상품별 수입 실적

(단위 : US\$백만, %)

품 목	1996	1997	비중(1997)
농산물 및 식품	1,306	1,259	15.0
화학제품	605	689	8.4
지 제 품	144	155	1.9
섬 유 류	250	264	3.2
철강제품	400	429	5.2
금속제품	252	260	3.2
전기전자제품	1,230	1,155	14.0
- 중전기기	514	409	5.0
- 사무기기	122	149	1.8
- 통신/가전	233	229	2.8
- 기타 전자제품	361	355	4.3
산업용 기계류	1,020	712	8.6
수송기계	1,230	1,325	16.0
- 자 동 차	1,180	1,268	15.4
총 수 입	8,373	8,248	100.0

자료원 : Foreign Trade Statistics, Ministry of Planning

쿠웨이트의 주요국별 수입실적

(단위 : US\$백만, %)

연 도	1996	1997	비중(1997)
(북미)			
미 국	1,399	1,124	13.6
(유럽)			
독 일	586	613	7.4
프랑스	336	323	3.9
영 국	513	527	6.4
이태리	582	490	5.9
스위스	155	196	2.4
(아시아)			
한 국	182	177	2.1
일 본	1,012	1,141	13.8
인 도	269	279	3.4
중 국	206	218	2.6
대 만	126	126	1.5
(중동)			
사우디	557	559	6.8
UAE	157	207	2.5
총수입	8,373	8,248	100.0

자료원 : Foreign Trade Statistics, Ministry of Planning

라.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1996	1997
GDP	US\$백만	30,710	30,400
명목 GDP 성장률	%	17.0	- 1.2
인 구	천명	2,094	2,210
1인당 GDP	US\$	14,660	13,760
물가상승률	%	2.4	0.7
수 출	US\$백만	14,770	14,300
수 입	US\$백만	7,860	7,770
무역수지	US\$백만	6,910	6,530
경상수지	US\$백만	7,020	7,820
외환보유고	US\$백만	4,140	3,800

자료원 : 쿠웨이트 중앙은행

마. 유가하락 관련 주재국 정부의 주요 경제·무역정책 변화 내용

- 쿠웨이트 정부는 OIL 판매 수입 급감으로 인한 재정적자 심화로 그간 계속 미루어 오고 있던 대대적 경제개혁 조치(민영화 및 공공요금 현실화) 시행에 내몰리고 있지만 방대한 규모의 차세대 기금으로부터의 적자보전이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보이고 있음.
-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포트폴리오 형태로 투자된 US\$450억 규모의 차세대 기금으로부터의 투자수익만으로도 재정적자 보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그러나 쿠웨이트 정부도 재정적자 추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 의식은 느끼고 있으며 '99년 초 전력, 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제도 신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제개혁 시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이를 토대로 한 입법 조치를 의뢰함.

- 국회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크게 반발, 동 경제개혁 시안을 국회 재무위에 회부하여 검토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임.
 -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공공요금 인상등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뜨거운 감자”를 국회로 떠넘긴 것에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가 동 단기 경제개혁 조치 시행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아예 법률시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역공을 가하고 있음.
- 정부 역시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할 경제개혁조치(공공요금 현실화가 중심)를 앞장서서 주도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99년중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의무가입(약 145만명 대상) 정도일 것으로 보임.
- 한편, 국회에서 그간 4년간을 끌어왔던 공기업 민영화법 및 외국인 투자유치법 개정안은 경제위기감 고조(경기침체 장기화/유가 급락에 따른 재정 악화), 경제에의 활력 투입 필요성 등으로 국회에서도 어느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가고 있어 연내 국회 통과가 점쳐지고 있음.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설사 외국인 투자 유치법이 통과되더라도 그 즉각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쿠웨이트 주변 여건(이라크와의 대치), 국내시장 협소, 숙련 노동력 희소, red tape 등으로 투자 유인이 부족하며 외국 투자가의 관심 분야인 오일 섹터는 아직까지 외국인에게 개방이 되지 않은 상태임.
- 공기업 민영화는 그간 민간부문에서 고대하던 바이며 민영화의 첫 대상 부문은 쿠웨이트 항공 및 통신부문이 될 것임.
 - 그러나 이들 정부부문의 민간 이양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짐.
- 쿠웨이트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에 의한 재정수입확대와 재정지출 억제 및 삭감을 모색하고 있음.

- 쿠웨이트 정부는 쿠웨이트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는 차세대 기금 운영에 대한 여론 비판에 대해 매우 민감한 입장으로 동 기금으로부터의 재정적자 보충보다는 재정수입확대와 재정지출 억제 및 삭감을 우선적으로 모색.
- 그러나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이 정부 및 공기업 부문의 급여와 이라크와의 대치상황에 따른 국방예산이기 때문에 재정지출 억제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임.
- 재정지출 억제와 관련,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프로젝트 예산이므로 상당수의 신규 발주예정 프로젝트들이 검토가 보류되거나 연기되고 있음.
- 프로젝트중 OIL 증산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영향을 덜 받고 있는 편이나 인프라 구축등 절박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 현재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
- 수전력부 소관 프로젝트 예산이 재무부로부터 크게 삭감을 당했으며 NORTH AL-ZOUR 지역에 건설할 발전소 및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는 검토가 무기한 연기됨.
 - 아국 H중공업의 경우 '98년 하반기 수전력부 발주 담수화 플랜트 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했으나 예산문제로 수전력부와 최종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음.

2. 유가하락 추세에 따른 수입시장 변화 동향

가. 주요 수입업자 반응

1) 자동차

- 소비자층 가처분 소득 감소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구매 연기 및 기피로 대부분의 수입상들이 '99년 매출액을 10-20% 낮춰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분기별 오더량도 삭감중에 있음.

- 아국 H자동차 현지 달러의 경우 '98년 1,650대를 수입 판매하였으나 99년에는 이보다 20%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2) 가전제품

- 교체수요 및 대체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고가품 수요가 타격을 받고 있음.
- 주요 가전제품 수입상(독점 달러)들은 '99년중 전년 대비 10% 이상의 매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으며 재고 과잉으로 고전중임.

3) 철강제품

- 소비경기 영향을 덜 받아 전체 수요규모 자체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나 가격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가격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음.
- 한국산 철강제품(형강, 봉강, 철근 등) 수입업체들은 '98년의 경우에는 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대거 오더를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 '99년의 경우 터키등에 대한 가격 경쟁력 열위로 대 한국 오더량의 30- 40% 삭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 직물

- 소비 경기 침체로 직물 도매상가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다수의 직물 도매상(수입상)들이 다량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음.
- 외국 직물 공급업체들의 오더분에 대한 L/C 수취율은 50- 60%로 저조한 실정임.
- 이러한 상황하에서 가격인하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함.

나. 소비자 구매 동향

- '97년 이래 OIL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로 정부 재정지출이 대폭 삭감되고 있어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쿠웨이트 취업 인구의 90%가 고용되어 있는 정부 및 공기업 부문의 임금동결, 쿠웨이트 민간기업이 의존하고 있는 정부 프로젝트 발주 연기 등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대폭 삭감되고 있음.
- 특히, 불요불급한 소비재나 가전제품, 자동차, 가구류 등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
- 이를 반영, '97년 쿠웨이트 상품 수입액은 전년보다 다소 낮은 US\$78억 수준이었으며 '98년에는 이보다 5%가 더 감소한 US\$74억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쿠웨이트 정부는 최근 민간 부문의 실물경기가 극도로 위축됨에 따라 도소매 유통경기를 진작코자 '99년 2월 한 달간 HALA FEBRUARY라는 대규모 쇼핑행사를 각 쇼핑몰 및 상가지역 단위로 시행토록 한 바 있음.
- 쇼핑몰 및 상가지역에서의 파격적인 바겐세일 실시, 공연행사 연출, 외국 구매자 유인을 위한 호텔요금 및 항공요금 할인 등.

3. 대 쿠웨이트 수출 대금 지불 지연 및 대금 미회수 상황 발생 가능성 분석과 거래시 유의사항

- 상당수의 수입업자들이 경기부진으로 오더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있고 자금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파산지경에 이를 정도는 아님.
- 쿠웨이트의 경우 대다수의 수입업자들이 L/C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L/C도 At Sight 조건이 일반적임.

- 쿠웨이트의 경우 시중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높고 외환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에 쿠웨이트 시중 은행에서 개설된 L/C는 아무 문제가 없음.
- 다만, 일부 수입업체들이 자금 압박을 받아 Usance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업체의 재정상태를 고려,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DA/DP 거래는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음.